**장편극영화시나리오**

**The Simulation**

**시놉시스**

방송 프로그램 PD인 오현아는 투덜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김도원을 불러서 유명한 SF작가의 부인 인터뷰를 찍게 된다. 오현아는 휴식 시간에 유명한 SF 작가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다가 벼락을 맞게 된다. 병원에 실려가는 오현아. 기가 뚫려서 자유인이 된 그녀는 자기가 살던 세상과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현아는 세상을 기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며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한다.

유명한 배우 박중석은 오현아와 김도원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얻어 대스타로 성장을 한다. 먼저 자유인이 된 박중석은 오현아한테 ‘무릉도원’이라는 곳이 다음 세계라는 것을 알려준다. 오현아와 김도원은 박중석을 통해 이 세상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인들이 시뮬레이션을 벗어나는 것을 막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벗어나려고 하는 오현아와 그녀를 막으려고 하는 국정원 직원들. 그녀는 과연 시뮬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작의**

 양자물리학자는 끈이론 속에 이진코드를 찾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인생이 비디오 게임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재빨리 게임을 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인물 소개서**

**오현아 (38세, 여자 주인공)**

별명은 징징이, 비이냥거리면서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산다. 직업은“미스터리 해설”이라는 프로그램의 PD.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이어서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함. 감전이 되고 나서 기가 뚫려서 ‘무릉도원’을 찾아 시뮬레이션을 탈출하려고 하는 히로인.

**김도원 (34세, 남자 주인공)**

SF 오덕후, 예전에 오현아 밑에서 연출 보조 역할을 맡음. 현재 영화 및 드라마의 PD 및 작가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달리고 있음. 오현아가 시뮬레이션을 탈출하는 것을 끝까지 도와준다. 예전에 오현아와 썸씽이 있었으며 그녀한테 집착을 한다.

**박중석 (38세, 톱스타 영화배우)**

오현아의 도움으로 “미스터리 해설”이라는 프로그램의 무명 배우로 버티다가 포텐이 터져서 톱스타 영화 배우가 되었음. 오현아와 같이 기가 뚫려서 연기를 엄청잘하게 됨. 오현아가 갈 길을 도와주려한다.

**최승진 (45세, 국정원 간부)**

수호자들의 우두머리이며 송방울샘이 뚫린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 무미건조하며 거만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반말을 한다.

**김상현 (27세, 국정원 직원)**

최승진의 부하, 그는 자신의 입지를 확립시키기 위해 날뛴다. 그의 거친 행동들 때문에 최승진은 골머리를 앓는다.

**이혜안 (25세, 결혼정보업체 매니저)**

밝고 해맑은 성겨을 가졌다. 금색 빈디가 있으며 하늘을 해독하면서 인류를 선도하려고 애쓴다. 김도원을 향해 사심을 가졌으며 그를 잡으려고 애쓴다.

**윤석현 (52세, 천주교 신부)**

이혜안과 같이 선도하는 길을 걷는 금색 빈디의 소유자.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예언들을 맞춰나가려 한다.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면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임규진 (42세, 회사원)**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 눈치가 빠르다. 그는 오현아의 첫 남자친구였다.

**이학구 (유명한 SF 작가)**

국내의 유일무이한 sf 작가, 지금 죽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외 인물 – 오현아 母, 임규영(임규진 동생)**

**S #1. 대학교 강단: 기자회견 TV 세트**

“2009년 5월 31일: 미스터리 해설 33회 녹화현장”이라는 문구가 뜬다.

대본을 손에 들고 세트장을 둘러보는 오현아.

아이스 커피 음료 2잔을 들고 오현아한테 가는 김도원.

 **현아 : 4차. 참 빨리 온다. 아프리카 갔다왔어?**

 **도원 : (아이스 커피를 건네주면서) 누나를 위해서라면…**

 **현아 : 소재가 떨어졌거든.**

 **도원 : (안경을 바로잡으며) 고마워.**

 **현아 : 게을러서 그래.**

기자 회견장 자리로 다가가는 박중석.

 **현아 : (박중석을 향해) 태권! 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루하니까**

 **제발 한번에 끝내자.**

 **중석 : 징징아, 그만 징징거리지. 되새김질이 뭐냐, 데자뷰가 더**

 **자연스러워.**

 **현아 : 그냥 있는 그대로 재연하자. 대본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중석 : 오그라드니까 그렇지.**

 **현아 :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야! 진짜 로보트를 대신 부를까?**

갑자기 썰렁해지는 분위기.

세트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현아를 쳐다보고 있다.

 **현아 : (어색하게 웃으며) 덥잖아, 스태프들을 챙겨야지.**

 **중석 : (맏받아치면서) 더우니까 노쳐녀가 히스터리 부릴만하지.**

 **현아 : 기계가 고장날 정도라니까. 연기나 잘해라, 이 삼류야.**

 **중석 : (호탕하게 웃으며) 윤활제 뿌려주면 굴러갈게.**

박중석은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죄송하다는 시늉을 한다.

세트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박중석의 춤에 환호를 지른다.

화를 겨우 참는 오현아, 커피를 한숨에 들이킨다.

 **도원 : (현아 팔을 잡으며) 누나는 이학구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 본 적 있어?**

 **현아 : 없어.**

 **도원 : 영화는?**

 **현아 : 봤지.**

 **도원 : 할리우드 버젼? 한국판 리메이크?**

 **현아 : 둘 다.**

박중석은 회견장 테이블에 앉는 것을 확인한 오현아.

오현아를 쳐다보는 박중석. 여유롭게 오현아를 향해 윙크를 날린다.

오현아는 손으로 윙크를 받는 시늉을 한다.

곧바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척하면서 왼발로 땅을 세번 세게 밟는다.

오현아의 반응을 보고 혼자서 즐겁게 웃는 박중석.

 **현아 : (소리를 지르면서) Lights, Camera, Action!**

 **도원 : 중석이형 화이팅!**

곧바로 에피소드 촬영들어간다.

**S #2. TV 화면: 이학구 기자회견 재연**

미스터리 해설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학구 기자회견 재연: 1978년 3월 2일”라는 문구가 뜬다.

‘이학구 작가 할리우드 진출 환영’이라는 배너가 벽에 걸려 있다.

박중석은 연설문을 혼자 독백하듯이 읽고 있다.

 **중석 :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색다른,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현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외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 제가 주장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도록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색다른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창조자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박중석은 이마에 고여 있는 땀을 손으로 닦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신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은 박중석을 찍고 있다.

 **중석 : (다시 연설문을 읽으며) 인간으로써 지금 제가 느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멈추는 박중석, 놀라는 척하는 팬들과 기자들.

헛기침을 하면서 연설문을 내려놓는 박중석.

 **중석 : 우리의 삶은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살면서 대체 현실을**

 **느끼는 순간 각 개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순간들을**

 **경함하잖아요, 변수가 작용해서 프로그램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이 마치 과거의 삶을 되새김질하는**

 **인상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고 있듯이.**

 **되새김질 경험들은 아주 타당하며 중요합니다. 창조자가 우리한테**

 **중석 : 주신 수수꼐끼이며, 과거 시점에 어느 변수가 적용되어서…**

다시 연설문을 드는 박중석. 그는 다급하게 다음 할 말을 찾고 있다.

술렁거리는 일일 연기자들, 어색하게 소곤거리고 있다.

 **중석 : 프로그램이 대체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과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또다른 이상한 세계을 곧 겪게 될 것입니다.**

그자리에서 기절하는 연기를 하는 박중석.

경악하는 연기를 펼치는 팬들과 기자들.

**S #3. TV 화면: 우리는 과연 Matrix에 살고 있는가?**

“미스터리 해설” TV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검정색 화면에 “우리는 과연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가?”라는 문구가 뜬다.

컴퓨터 화면이 나오면서 이진코드가 정신없이 나열되고 있다.

 **현아(V.O.) : 노벨상을 탄 James Gate Jr 양자물리학자는 끈이론**

**속에 이진코드를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파헤져 봅시다.**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진코드들은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S #4. 스튜디오 녹음실 밖 – 낮**

무선 헤드폰을 목에 걸치고 나오는 츄리닝복차림의 오현아.

나오자마자 반바지를 입은 김도원은 하드를 그녀한테 건네준다.

 **도원 : 수고했어.**

 **현아 : (하드 비닐봉지를 뜯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주말인데.**

하드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오현아.

 **도원 : 누나, 현실을 의심해 본 적 있어?**

 **현아 : 그럼. 통장을 볼때마다 의심하지. (웃으며) 월급날 쇼크 항상 먹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현아의 농담을 받아주는 도원.

 **도원 : 이학구 작가가 되새김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데자뷰와 똑같은 것 같아. 창조자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 속에서 각자 살고 있어.**

 **현아 : 4차, SF 소설일 뿐이야.**

 **도원 : 아니라니까. James Gate Jr 박사의 논문을 읽었는데,**

 **기초 입자들 속에 초대칭이론이 수학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

오현아는 귀에 연결되어 있는 보청기의 전원을 끈다.

김도원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김도원의 말에 수긍을 하는 척하는 오현아.

우리는 오현아의 청각을 경험한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미소를 지으며 김도원을 보는 오현아.

그녀 반응에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피는 김도원.

**S #5. 지하철역 지하 상가 앞 - 낮**

검정색 양복을 입은 최승진.

비어 있는 상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유리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꽤뚫어 보고 있다.

시계를 확인해보니 딱 5:31 P.M.

플라즈마로 된 문이 느닷없이 벽에 등장한다. 벽 전체가 물로 변한다.

갑자기 플라즈마 문에서 뛰쳐나오는 대학생.

대학생은 최승진을 발견하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한다.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나는 대학생. 뒤쫓아가는 최승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정지된 상태이다.

출구를 향해서 재빨리 뛰어나가는 대학생.

 **승진 : (소리를 지르며) 멈춰!**

쫓는 것을 포기하는 최승진.

 **승진 : (혼잣말로) 젠장.**

주위 사람들은 정지된 상태가 풀린다.

**S #6. 지하철역 입구 - 낮**

숨을 헐떡거리면서 입구에 뛰어나오는 대학생. 고개를 돌려 계단 쪽을 본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을 돌린다.

입구 맞은편 공원에서 최승진을 발견하는 대학생.

기겁을 하면서 공원 안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한다.

**S #7. 공원 흡연 장소 - 낮**

가방을 메고 불편하게 의자에 앉으면서 담배를 피는 오현아.

주위를 둘러보는 오현아, 시위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

그 사이로 도망가는 대학생을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다.

점점 오현아를 향해서 다가오는 대학생.

오현아 바로 앞에 순간이동을 해서 나타나는 최승진.

놀라는 오현아 담배를 떨어트린다.

대학생은 전력질주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스려고 애쓴다. 넘어지는 대학생.

 **승진 : 승범아, 질서를 지켜야지.**

 **대학생 : 말이라고 하니?! 지금 당장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거든!**

대학생은 격투기 자세를 잡으며 최승진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간다.

최승진은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놓는다.

스마트폰을 긁으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최승진.

그는 곧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대학생은 기합소리를 내면서 돌려차기로 최승진의 머리를 노린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로 대학생의 발을 막는 최승진.

충격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진다.

최승진을 곧바로 바닥에 굴면서 일어나려 한다.

대학생은 굴러가는 최승진을 밟으려 한다.

간발의 차이로 발을 피하면서 일어나는 최승진.

대학생은 곧바로 주먹으로 원투 펀치를 날린다.

최승진은 라이트가 날아오자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뒤로 물러난다.

대학생은 시원하게 훅을 날리면서 앞으로 튀어나온다.

위빙을 하면서 훅을 피하는 최승진. 라이트를 뻗으면서 오히려 몸을 붙힌다.

대학생은 간발의 차로 최승진의 주먹을 피한다.

서로 놀라면서 떨어지는 2 사람. 조용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최승진은 갑자기 오현아를 쳐다본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뒷걸음질하는 오현아.

 **승진 : 오현아씨,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현아 : 예? 누구세요? (당황하며) 왜요? 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대학생은 틈을 타서 최승진을 향해서 돌진한다.

서로 몸이 붙으며 레슬링하는 2 사람.

최승진은 상대를 힘으로 밀고 있다.

몸을 옆으로 돌리며 몸을 푸는 대학생.

도망갈까 말까 추춤하는 오현아.

주위를 둘러본다. 신기하게 아무도 이 싸움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

아니 주위 사람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아 : (혼잣말로) 뭐야?**

고개를 돌려서 다시 싸움을 구경하는 오현아.

동시에 뒷걸음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

주먹을 다시 날리면서 최승진한테 다가가는 대학생.

연타를 날리면서 앞으로 돌진한다.

최승진은 양팔로 얼굴을 막으면서 조금씩 뒷걸음치고 있다.

순식간에 날리는 카운터 펀치. 앞으로 쓰러지면서 K.O. 당하는 대학생.

 **승진 : (오현아를 향해) 눈을 감아.**

최승진은 발로 대학생의 머리를 밟기 시작한다.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오현아.

대학생의 머리를 계속 밟으며 생사를 확인하는 최승진.

대학생의 얼굴은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오현아.

 **현아 :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최승진은 순강이동을 해서 오현아 바로 앞에서 선다.

오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현아 : (빌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최승진은 손으로 오현아의 머리를 잡는다. 기절하는 오현아.

최승진은 곧바로 죽은 대학생의 목에 실리콘 목걸이를 걸어둔다.

시간 경과.

일어나는 오현아. 주위를 둘러보면서 일어나는 오현아.

최승진을 발견하고 다시 주저앉는 오현아.

 **승진 : 보청기 항상 달고 다녀라.**

 **현아 : …**

자신의 귀를 만지며 보청기가 귀에 꼽혀 있는 것을 확인하는 현아.

 **승진 : 가만히 있어.**

최승진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오현아의 귀에 갖다 댄다.

개피리 같은 고음 주파수가 들린다.

다시 멈춰지는 시간, 단, 오현아만 멈쳐져 있다.

공원 내의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볼일을 보고 있다.

 **승진 :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거야.**

방금 겪은 기억들을 모조리 까먹는 오현아. 눈이 하얗게 얼려있다.

순간이동을 하면서 자리에서 사라지는 최승진.

멈춰진 시간에서 깨어나는 오현아.

옆에 누워 있는 대학생의 시체를 발견하고 놀란다.

단, 죽은 대학생의 얼굴은 멀쩡하다.

숨결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거는 오현아.

 **현아 : 여보세요, 여기 XX 공원이에요. 여기서 어린 대학생이**

 **죽었어요. …. 여기 분수대 근처에요.**

울면서 대학생의 시신 옆을 지키는 오현아.

**S #8. 이학구 별장 거실 - 낮**

“2016년 5월 31일”라는 문구가 뜬다.

인터뷰를 준비하는 TV 스태프 인원들.

벽에 걸려 있는 영화 포스터를 바라보는 단발머리 오현아.

영화 포스터: 커튼을 들춰내는 어린 소녀, 커튼 일부에 비치는 이진코드.

“데자뷰”라는 영화, 제작자에 김도원의 이름이 보인다.

주연 이름 옆에 박중석이 있다. 개봉일은 2012년 6월 18일.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김도원.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TV 스태프들.

 **도원 : 누나.**

 **현아 : (놀라며) 용 됐네. 안경은?**

 **도원 : 렌즈껴.**

 **현아 : 4차, 잘나가니까 인물이 산다.**

 **도원 : 누나도 그대로야.**

 **현아 : 취집이나 하고 싶다. 잘나가는 사람 소개시켜줘,**

**귀찬니즘에 좀 벗어나자.**

서로 쳐다보고 웃는 2사람. 어색하기만 하다.

 **도원 : 사모님은?**

 **현아 : 화장하고 있어. 직접 인터뷰할래?**

 **도원 : 당삼.**

 **현아 : 포키몬 고하고 있을게, 알아서 해줘라.**

 **도원 : 몸값이 비싸서.**

 **현아 : 덕후야, 10원 줄테니까 고고싱해라.**

오현아는 휴대폰을 챙기고 별장 2층으로 혼자 올라간다.

**S #9. 이학구 별장 2층 베란다 - 낮**

종이컵을 들고 혼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오현아.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린다.

베란다 유리문이 열리면서 오현아한테 가는 김도원.

 **도원 : 제정신이야? 인터뷰 찍는 것…**

 **현아 : (가로채며)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잖아. 잘 마쳤지?**

 **도원 : 어.**

자신의 담배갑을 통째로 도원한테 건네주는 오현아.

 **현아 : 수고했어. 선물이야.**

 **도원 : (담배갑을 돌려주며) 핀 적 없는데.**

 **현아 : 소잿거리나 좀 줘라.**

 **도원 : 욕할거면서.**

 **현아 : 과거에 열폭했지. 도원느님, 옹졸하게 굴지 말고 도와줘라.**

 **도원 : ….**

 **현아 : (종이컵 구기면서) 너를 생각해서 초대했잖아.**

 **도원 :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유튜브 난리 났다니까, 조회수가 1천4백만 넘어가고 있어.**

오현아는 종이컵을 신경질적으로 던진다.

 **도원 : 욕할거라고 했잖아.**

 **현아 : (화를 내며) 꼭 시비를 걸어!**

김도원은 베란다 반대편에 있는 구겨진 종이컵을 치우러간다.

 **현아 : (소리 지르며) 무뇌충아 생각 좀 하고 대답하라니까!**

담배를 버리고 발로 지지는 오현아.

천둥소리가 나면서 번개가 현란하게 반짝거린다.

하늘을 쳐다보는 오현아와 김도원.

번개를 맞는 오현아. 쓰러지면서 전기를 흡수하는 오현아.

귀에 꽂혀 있는 보청기에서 연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얼어붙은 김도원, 오현아를 향해서 가다가 멈춰선다.

그는 정신차리고 밑에 있는 TV 스태프들을 찾아나선다.

**S #10. 병원 중환자실 – 밤**

인공호흡기를 낀 상태로 혼수상태로 빠져 있는 오현아.

문이 닫혀 있으며 의학용 기기들의 빛만 보인다.

그녀는 헉헉거리면서 깨어난다.

제 3의 눈자리에 파란색 빛이 현란하게 반짝거리고 있다.

눈동자 색깔이 변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오현아.

**S #11. 병원 약국 앞– 아침**

모자를 눌러쓰며 마스크를 끼며 약을 기다리는 박중석.

불안하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시선들을 의식한다.

약봉투를 받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다. 걸어들어오는 김도원.

 **중석 : 도원아.**

 **도원 : 형?**

 **중석 : 오, 왠일이야?**

 **도원 : 현아 누나 혼수 상태야. 벼락 맞았어.**

**중석 : 농담하지 말고.**

**도원 : ….**

**중석 : 진짜야? 괜찮아?**

**도원 : 곧 깨어나. 같이 보러 가자.**

**중석 : (웃으며) 불편하기도 하고. 지랄거릴 것이 뻔하니까.**

**3년전에 동창회에서 싸웠거든. 그 이후로 안 나오더라.**

약봉투를 꺼내면서 약 2알을 도원한테 건네주는 박중석.

 **도원 : 뭐야?**

 **중석 : 바이아그라. 총각 딱찌는 땠냐? 형아가 쏠테니까 오늘**

 **좋은데 가자.**

 **도원 : 일해야 돼.**

 **중석 : 환상의 투톱을 보여줘야 하는데… TV에 메달리고 있다니.**

 **재능이 아깝다.**

약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김도원.

박중석도 어쩔 수 없이 김도원을 쫓아간다.

**S #12. 병원 여자 화장실 – 아침**

세수를 하는 오현아, 세수하는 것을 멈추고 거울을 본다.

파란색 빈디가 미심륜 자리에 박혀 있다.

빈디를 만지면서 신기해하는 오현아.

비누를 들고 빈디를 세게 문지르기 시작한다. 안지워지는 빈디.

거울 뒤에 지나가는 환자.

비누가 묻혀있는 체 뒤를 돌아보는 오현아.

**S #13. 오현아 시선 : 몽타쥬**

1) 뒤의 환자에 나오는 이상한 보랏빛의 아우라.

오현아는 비눗물을 환자복으로 재빨리 닦는다.

2) 화장실을 나와서 복도로 뛰어가는 오현아, 처음 보는 세상에 놀란다.

주위 아우라들. 무지개색깔이 복도를 빛낸다.

몇명의 사람들은 아우라가 없다.

현란한 색깔들을 둘러보면서 입을 벌리는 현아.

3)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걸어가는 다이몬드 아우라의 여자아이.

여자아이한테 말을 걸려고 하지만, 여자아이는 도망을 간다.

다른 아이를 찾으러 복도를 거침없이 활보한다.

어린 남중학생의 어깨를 잡는 오현아.

 **남학생 : 왜 그래요?**

 **현아(V.O.) : (당황하며) 제가 아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남학생은 재빨리 자리를 뜬다.

4) 반대편에서 걸어서 오는 김도원과 박중석.

박중석의 움직임이 환영처럼 겹치면서 다가온다.

박중석의 파란색 빈디가 별처럼 반짝거리면서 오현아의 시선안으로 들어간다.

5) 복도 천장이 보이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쓰러지는 시선, 화면이 어두워진다.

**S #14. 병원 중환자실 – 아침**

기절한 상태에서 누워 있는 오현아.

박중석과 김도원은 침대 곁에 있다.

 **중석 : (나가면서) 깨면 연락해라.**

 **도원 : 알았어.**

박중석이 나가자마자 눈을 뜨는 오현아.

 **도원 : 왜 연기를 하고 그래.**

 **현아 : 상대하기가 좀 거북해서.**

**도원 : 그냥 용서해주지. 동창이잖아. 형은….**

 **현아 : (말을 가로채며) 다른 이유가 있어. 알면 다쳐.**

 **도원 : 뭔데? 시원하게 누나의 입장을 밝혀봐. 내가 중간에서….**

 **현아 : (다시 말을 가로채며) 비밀이야.**

상처 받아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김도원. 그녀의 휴대폰이 울린다.

김도원은 오현아의 휴대폰을 오현아한테 건네준다.

휴대폰을 받자마자 전원을 끄는 오현아.

 **현아 : 도원아 내가 있잖아... (귀를 가리키며) 뭔가가 달라보여?**

서로 쳐다보는 2 사람. 수긍을 하는 김도원.

 **현아 :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고를 당한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 뭔가가 변해서,**

 **진짜 미치겠다. 야, 너 진짜 또라이 소리 한 번 들어볼래.**

 **도원 : 좋아.**

 **현아 : 나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뭔지 모르는 능력을**

 **득템했다니까.**

 **도원 : 무슨 능력?**

 **현아 : 아직 몰라.**

 **도원 : 누나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아무 대구도 하지 않는 오현아.

현아가 화를 내려고 하자 움찔하는 김도원.

 **현아 : 정말 너다운 발상이다. 너랑 얘기하면 내 멘탈이 붕괴돼.**

 **피곤하니까 나중에 대화하자.**

 **도원 : 알았어.**

 **현아 : 퇴원해야 하니까 그만 가봐.**

 **도원 : 오케이. 연락할게 전화 씹지마.**

나가는 김도원,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는 오현아.

**S #15. 공원 흡연장소 건너편 벤치 - 낮**

“2009년 6월 1일”이라는 문구가 뜬다.

S#7에 나오는 장면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신부복을 입은 윤석현은 대학생과 최승진이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

그는 고급 수동 카메라로 싸움을 찍는다.

 **석현 : (혼잣말로) 아멘.**

멈춰진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오현아를 쳐다보는 윤석현.

윤석현은 카메라로 오현아를 찍기 시작한다.

**혜안 : 저기요.**

놀라서 괴성을 지르면서 넘어지는 윤석현.

힙합 옷차림의 20대 초반의 여자 이혜안의 정체를 확인하는 윤석현.

 **석현 : (일어나면서) 깜짝이야. (혜안을 향해) 누구세요?**

 **혜안 : 신부님과 같은 사람요.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며) 부름을**

 **받았어요.**

 **석현 : (혼잣말로) 나같은 사람이 또 있을줄이야.**

 **저기…. 아가씨… 아니 학생…**

 **혜안 : 저는 이혜안입니다. 현재 \*\* 대학 물리천문학과 2학년이고요.**

윤석현은 이혜안 미심륜에 있는 금색 빈디를 확인한다.

 **석현 : 이름 제대로 지었네. 나는 윤석현이야.**

 **혜안 : (헤맑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인사를 하며) 선배님, 많은 지도 부탁드려요.**

 **석현 : 어디까지 알아?**

 **혜안 : 태양은 거대한 변압기이고 우주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주는 가짜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석현 : 여기 온 이유는?**

 **혜안 : 삼삼요.**

 **석현 : 나도야.**

 **혜안 : 언제 일어나요?**

 **석현 : (최승진을 가리키며) 제내들만 알아.**

이혜안은 최승진이 발로 대학생의 머리 밟는 것을 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그 광경을 외면한다.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혜안.

 **석현 : 도망 갈 필요 없어. 그들은 우리 볼 수 없어.**

멈추는 이혜안. 윤석현은 최승진을 향해서 걸어간다.

 **석현 : (최승진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너도 곧 심판을 받게 될거야!**

최승진은 오현아의 기억들을 지우고 있다.

최승진과의 거리를 좁히는 윤석현.

 **석현 : (최승진을 향해 다시 시소리를 지르며) 주파수 갖고 장난치는**

 **것 곧 들통날꺼야!**

최승진은 윤석현과 이혜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석현 : (이혜안을 향해) 최근에 깨어났구나. 사진들이나 인화하러 가자.**

이혜안은 고개를 끄덖이며 수긍을 한다.

**S #16. 결혼정보업체 회사 복도 – 낮**

“2016년 6월 2일”라는 문구가 뜬다.

점심 시간 끝나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직원들.

엘리베이터에서 이혜안과 윤석현이 나온다.

윤석현은 가방을 열어서 투명한 비닐 폴더를 이혜안한테 건네준다.

 **혜안 : 벌써 가시려고요?**

 **석현 : 새로운 것을 찾으면 전화걸게. 사진들 그만 잊어먹어라.**

 **혜안 : 아쉬워요, 커피라도 한잔 마셔요.**

 **석현 : 그래봤자 했던 말 또 다시 할거잖아.**

 **혜안 : 전화 걸지 말고 직접 만나요. 바람이라도 세요.**

 **석현 : 신호들을 놓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윤석현.

 **혜안 : 다 볼 수 없잖아요. 딴 짓하면서 인생을 즐겨요.**

 **석현 : 신호 잡는 것이 내 인생이야. 그만 들어가라.**

김도원이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사무실을 향해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윤석현.

 **석현 : 항상 웃어라. 부러워.**

 **혜안 : (인사를 하며) 사진들을 조만간 다시 잃어버릴게요.**

닫히는 문을 통해서 웃는 윤석현을 보는 이혜안.

비닐 폴더에 나오는 오현아 사진을 관찰하는 이혜안.

사무실로 들어가서 대기실 의자에 앉는 김도원.

**S #17. 결혼정보업체 사무실 안 – 낮**

김도원의 포로필을 재빨리 읽는 이혜안.

경력 사항을 펼쳐놓고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한다.

전화기로 안내원을 거는 이혜안.

 **혜안 : 들어오시라고 해요.**

일어나면서 문을 연다.

긴장을 하면서 양손으로 스커트를 거뮈지는 이혜안.

 **혜안 : (혼잣말로)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에이라 모르겠다.**

들어오는 김도원. 문을 재빨리 닫는 이혜안.

 **혜안 : (악수를 신청하며) 안녕하세요. ‘평행 우주 이론’**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도원 : (악수를 하며) 감사합니다.**

 **혜안 :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도원 : 괜찮아요.**

 **혜안 : 앉으세요. 차 드실래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김도원. 눈 마주치는 2 사람.

그는 어디에 시선을 돌릴지 모른다. 결국 바닥을 보는 김도원.

 **혜안 :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내요. 도원씨처럼 특별한 고객님을**

**처음 만나서, 혹시 찾으시는 스타일이…**

 **도원 : (앉으면서) 없어요.**

 **혜안 : (웃으며) 소잿거리 찾으러 여기 오셨나요?**

 **도원 : (짜증을 내면서) 어머님이 대신 가입했습니다.**

 **혜안 : (앉으면서) 주위에 여성분들이 넘쳐날텐데, 혹시 여자친구는**

 **있는데 어머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새끼**

 **손가락을 들면서) 숨겨두신 애인이…**

 **도원 : (무뚝뚝하게 말을 가로채며) 아니요.**

 **혜안 : 모태솔로?**

 **도원 : ….**

 **혜안 : 농담이고요. 달려드는 여배우들과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도원 : (새끼손가락 흔들면서) 부담스러워요.**

김도원의 제스쳐에 박수를 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이혜안.

 **도원 : 부탁 하나 해도 괜찮나요?**

 **혜안 : 그럼요.**

 **도원 : 오늘 상담 왔다고 어머님한테 확인 전화해주실래요.**

 **혜안 : 당연하죠.**

일어나는 김도원.

 **혜안 : (당황하면서) 벌써 가시려고요?**

 **도원 : 바빠요.**

비닐 폴더를 챙기고 일어나는 이혜안.

오현아의 사진들을 발견하고 다가가는 김도원.

김도원은 재빨리 폴더를 낚아챈다.

 **혜안 : (겁내면서) 왜 그러세요?**

그는 이혜안의 반응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폴더를 열고 오현아와 최승진의 사진들을 자세히 관찰한다.

아무말도 못하는 이혜안.

 **도원 : (현아의 사진을 혜안한테 보여주며) 누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 남자는 또 누구인지 설명해주세요.**

 **혜안 : ….**

 **도원 : (다급하게) 둘이 만나고 있나요?**

 **혜안 : 저야 모르죠. 7년전 \*\* 공원에서 찍은 것들이라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양손을 벌리고 사진들을 달라는 시늉을 하는 이혜안.

 **도원 : (사진을 돌려주며)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내.**

 **혜안 : 설명해드릴게요. 시간 되시죠?**

 **도원 : 시간 많아요.**

오현아의 사진 한 장을 꺼내서 김도원한테 준다.

 **혜안 : 이것 가지세요. 제일 잘 나왔네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김도원.

**S #18. 호텔 로비 커피숍 – 낮**

양복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박중석.

건너편에 앉은 2명의 슈퍼모델급 미녀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박중석.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면서 입구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야구모자를 눌러쓴 오현아를 보자마자 손으로 오라는 시늉을 보낸다.

그의 손짓에 기분 나빠하는 현아. 입으로 쳇 소리를 내면서 앉는다.

 **중석 : 오징징, 스펀지밥은?**

 **현아 : 몰라.**

 **중석 : 왜 기절한 척 했어? 전화는 또 왜 씹어.**

아무말도 못하는 오현아.

다가오는 웨이터의 기운을 느끼는 중석.

 **중석 : (웨이터를 향해) 아이스 카파치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현아 : (웨이터를 향해) 제 것은 따뜻한 걸로 주세요.**

주문 변경 때문에 당황하는 박중석.

 **현아 : (비이냥거리면서) 기가 막혀. (손가락으로 박중석의**

 **파란색 빈디를 지정하며) 아니, 뚫렸지. 운이 좋아.**

 **중석 : 너도잖아.**

 **현아 : 잡담은 이제 그만.**

건너편에 앉은 2명의 슈퍼모델급 여성들은 크게 웃기 시작한다.

그녀들의 반응을 신경쓰는 오현아와 박중석.

 **중석 : 지금 사는 곳을 리니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거대한 MMORPG**

 **안에서 살고 있어. (미심륜을 손으로 찍으며) 우리는**

 **멀티플레이어들이야.**

 **현아 : 나머지 사람들은?**

 **중석 : NPC들이야.**

 **현아 : NPC, 그게 뭔데.**

 **중석 :** **Non playing Character.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캐릭터, 공략**

**할 수 없거든, 불필요한 존재들이야.**

 **현아 : 미쳤어. 사람들 거의 다 NPC잖아.**

 **중석 : 그럼. 단, 그들은 잉여 인간들이야. 우리처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지 못해.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야. 비디오 게임을 깰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커피를 들고 오는 웨이터.

동시에 건너편 앉은 미녀 중 한 명이 대담하게 테이블에 앉는다.

명품 가방을 일부러 오현아의 커피잔 옆에 올려놓는다.

 **미녀 : (박중석을 향해) 안녕하세요,**

거만하게 등을 제끼고 의자에 눕기 시작하는 박중석.

 **미녀 : (박중석을 향해) 팬이라서요. (오현아를 한 번 째려보고) 언제 또**

**스타와 이렇게 단둘이 만날 수 있나 싶어 용기를 한 번 내봤어요.**

 **현아 : 저기요, 우리 둘이서 지금 대화중인데….**

 **미녀 : (혼잣말로) 뭔 상관이냐.**

너무 자연스럽게 한 손을 박중석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미녀.

화를 겨우 참는 오현아.

 **미녀 : 박중석씨, 저는…**

 **중석 :** **(가로채며) 500만원 줄테니까 오늘 연예하자.**

**고민하는 미녀.**

미녀와 박중석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오현아.

 **현아 : (박중석을 향해) 꺼져줄까?**

윙크를 오현아한테 날리는 박중석.

자세를 바로잡으며 100원짜리를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중석 :** **마음이 변했어. 이것만 줄게.**

 **미녀 : (화를 내며) 이 개새끼야! 나를 어떻게 보고 무시하냐?!**

 **중석 :**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다시 협상하는 거야.**

 **싫어? 싫으면 이만 가봐.**

**가방을 잽싸게 낚아채는 미녀.**

**가방을 이용해서 박중석의 커피잔을 엎으려고 한다.**

**박중석은 재빨리 커피잔을 낚아챈다.**

 **중석 :** **(커피를 마시고 나서) 꽃뱀들이 많아.**

 **현아 : 쟤는 왜 아우라가 없어?**

 **중석 :** **무뇌충들이야. 생각보다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지.**

**욕을 크게 하면서 나가는 미녀와 그녀의 친구.**

**웃으며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는 박중석.**

 **중석 :** **끼리끼리 만난다고.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무릉도원이나 가자.**

커피를 마시며 수긍을 하는 오현아.

**S #19. 호텔 야외 주차장 – 낮**

고급 스포츠카 앞에 서 있는 최승진과 그의 부하 김상현.

김상현은 권총을 꺼낸다.

 **승진 : 치워라.**

 **상현 : 위협하려고요.**

 **승진 : (CCTV 지정하며) 기록돼. 교과서대로 하자.**

 **상현 : 예.**

김상현은 권총을 다시 집어넣는다.

 **상현 : 제가 고문해도 되나요?**

 **승진 : 상황을 봐서.**

 **상현 : (좋아하며) 최 차장님 최고야.**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김상현.

**S #20. 호텔 엘리베이터 안 – 낮**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박중석.

승객들은 박중석을 몰래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다.

5:31 P.M.을 보자마자 오현아를 친다.

 **중석 : (시간을 보여주면서) 리셋되는 시간이야.**

오현아는 주위 승객들을 본다. 날카로운 고음 주파수 소리가 들린다.

시간이 멈춰진 승객들. 눈동자가 변하며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있다.

 **중석 :** **신기하지. NPC들의 기억력이 조정되고 있어.**

 **현아 : (혼잣말로) 전혀 모른단 말야.**

 **중석 :** **눈치채고 있어. 그들은 그것을 만델라 효과라고 불러.**

승객들은 프로그램에서 깨어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가는 모든 승객들.

**S #21. 호텔 야외 주차장 – 낮**

박중석의 스포츠카 앞에서 기다리는 최승진과 김상현.

스포츠카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현아와 박중석.

오현아는 국정원 직원들의 빨간색 빈디를 노려보고 있다.

 **중석 :** **(현아한테) 쫄지마.**

 **현아 : (속삭이며) 왜 이렇게 싫지. 재네들 뭐야?**

 **도원 : (속삭이며) 우리와 상극.**

 **승진 : 어이, 오랜만이야.**

 **중석 :** **(웃으며)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영광인데, 싸인 받으러**

 **오셨나요?**

 **승진 : 따질 것이 좀 있어서.**

 **중석 :** **(넉살스럽게) 콜미 하시지.**

**전화기를 꺼내서 최승진한테 전화걸기 시작하는 박중석.**

 **상현 : (오현아를 노려보며) 봤으면 인사해라.**

 **현아 : 뭔데 반말이냐.**

 **승진 : (오현아한테) 나를 혹시 기억하니?**

 **중석 :** **(웃으며) 새내기라서 정글의 법칙을 모른다는 것을**

 **아실텐데. 좋게좋게 넘어갑시다.**

 **승진 : 제 때문에 온줄 알아?**

오버액션하면서 놀라는 척하는 박중석.

울리기 시작하는 최승진의 휴대폰.

최승진은 곧바로 통화를 끊는다.

 **중석 : (전화기를 주머니 안에 놓고) 설마 나 때문에. 농담 심하시다.**

 **상현 : 좆밥아, 다 알아.**

 **중석 :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만 가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로…**

 **현아 : (가로채며) 계속 시비걸면 경찰 부른다.**

**웃으며 국정원 배지를 보여주는 김상현.**

 **상현 : 불러.**

 **중석 : (현아한테) 가만히 있어.**

 **상현 : 그냥 따라와라.**

 **중석 : 협박하는 거예요?**

 **상현 : 어.**

김상현은 권총을 꺼내서 박중석의 머리를 겨냥한다.

지나가는 호텔의 고객들은 총을 보자마자 숨는다.

 **승진 : 야! 안 치워!**

 **상현 : 말로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고요.**

 **승진 : 꼴통 새끼!**

여유있게 가만히 서 있는 박중석.

오현아는 팔을 뻗어서 권총을 낚아채려고 시도를 한다.

최승진은 오현아의 팔을 막는다.

팔을 돌려서 다시 권총을 잡으려고 하는 오현아.

오현아의 팔을 풀어주고 다시 잡는 최승진.

 **승진 :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란다.**

 **현아 : 잡아가는 이유가 뭐야?**

 **상현 : 무릉도원. (박중석한테) 니 친구도 같이 잡아간다.**

 **중석 :** **치사하게 나오시네. (양손을 들면서) 알았어.**

**조용히 따라갈게.**

최승진은 수갑을 박중석한테 건네준다.

수갑을 스스로 체우는 박중석.

 **승진 : (김상현한테) 뒷정리해라.**

 **상현 : 예.**

 **현아 : 죄를 지어야지 잡아갈 수 있지. 데리고 가기만 해라,**

 **온갖 언론사한테 뿌릴테니까!**

 **중석 :** **(현아한테) 가만히 있어.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최승진은 양손을 박중석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집중을 하면서 눈을 감고 기합소리를 내는 박중석.**

**순간이동을 하면서 사라지는 박중석과 최승진.**

입을 벌리며 구경하는 오현아.

 **현아 : 어디 갔어?**

오현아를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여는 김상현.

그는 고음 주파수를 보낸다. 개피리 소리가 들린다.

눈동자가 변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들이 지워진다.

오현아는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서 순간 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상현 : 병닭아, 니 자신을 알아라.**

상현의 말을 무시하고 기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오현아.

4번 지르고 포기하는 오현아.

 **상현 : 쇼를 해라.**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김상현. 그를 따라가는 오현아.

**S #22. 호텔 관제실 – 낮**

들어가는 김상현. 따라서 들어가는 오현아.

김상현은 스마트폰을 작동시킨다. 멈추는 호텔 직원들.

 **상현 : 집에 가라.**

 **현아 : 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다니, 재미있군.**

CCTV 메인 녹화장치 앞으로 가는 김상현.

양복 윗저고리에서 강력한 자석을 꺼낸다.

자석을 녹화장치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김상현.

 **현아 : 답답하니까 빨리 잡아간 이유를 가르쳐줘.**

코웃음을 치면서 수족관을 향해 가는 김상현.

이상하게 물고기 한마리는 계속 수영을 하고 있다.

잽싸게 손을 집어넣어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김상현.

왼쪽 팔 양복 윗저고리와 와이셔츠가 젖어 있다.

손아귀에 힘을 주면서 물고기를 움켜쥐는 김상현. 터지는 물고기.

 **현아 : 중석이를 죽일거야?**

 **상현 : 때가 되면.**

물고기 시체를 오현아한테 건네주는 김상현.

그는 곧바로 cctv 녹화기에 있는 자석을 챙긴다.

 **상현 : 사고 치지나 마라. 30초 후에 풀리니까 알아서 해.**

순간이동을 하면서 사라지는 김상현.

물고기 사체를 들고 관제실을 재빨리 나가는 오현아.

**S #23. 국정원 수사실 – 낮**

박중석의 목을 잡고 비트는 최승진.

박중석은 수갑 때문에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한다.

 **승진 : 언제 어디서. 빨리 대답해라.**

 **중석 :** **…..**

 **승진 : (목을 풀면서) 녹음됐어.**

 **중석 : (헐떡거리면서) 헛소리하고 그래요. 저는 오프라인 전사랍니다.**

 **승진 : 거짓말해서 뭐하노.**

최승진은 유리벽을 향해서 고개를 끄떡인다.

**S #24. 국정원 수사실 유리벽 안 – 낮**

빨간색 빈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는 곧바로 음원 파일을 재생시킨다.

**S #25. 국정원 수사실 – 낮**

박중석은 최승진을 비웃으며 노려보고 있다.

 **중석(V.O.) : 헤어지자.**

 **여배우(V.O.) : 또 속이려고! 안 통한다니까.**

 **중석(V.O.) : 여행이나 가려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거야.**

 **여배우(V.O.) : (웃으며) 어디 가려고, 이 바쁜 양반아.**

 **중석(V.O.) : 무릉도원.**

웃는 최승진, 테이블에 엎드리는 박중석.

 **여배우(V.O.) : 재미있어, 정말. 무릉도원 다음에 에덴동산이나**

**같이 놀러가자.**

**끊키는 음원.**

 **중석 : (한숨을 쉬며) 같이 휴대폰을 껐을텐데.**

 **승진 : tv를 통해서 녹화했어.**

 **중석 : (혼잣말로) TV 껐는데.**

 **승진 : TV 전원코드 뺐어야지,**

 **중석 : Big Brother, 전체주의가 왔어 왔구나. 낮말은 컴퓨터가 듣고**

 **밤말은 TV가 듣는 세상이네. 무섭다, 정말.**

**박중석의 말을 무시하는 최승진.**

 **중석 : (수갑 찬 손을 내밀면서) 풀어줄거죠? 룰을 지키셔야죠.**

 **승진 : 그럼. 결백한데 가둬둘 수 있나.**

 **중석 : 목줄 살살 조으면 안될까요? 답답하잖아요.**

최승진은 박중석의 수갑을 풀어준다.

**S #26. 국정원 지하 기계실 – 밤**

**비상발전기 뒤에 모여 있는 국정원 직원들 5명.**

**그들은 모두 빨간색 빈디가 뚫려 있다.**

**보라색 빛깔의 크리스탈 5개와 투명한 물통이 연결되어 있는 물체 앞에 있다.**

**기마자세로 기를 모으는 직원들, 기를 모아서 물체를 향해서 쏘기 시작한다.**

**물통의 물이 회오리 치면서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크리스탈들.**

**크리스탈들이 작동되자 유슈 도복을 입은 중후한 할아버지의 홀로그램이 나온다.**

**기마자세를 푸는 최승진, 나머지 직원들은 기를 계속 보내고 있다.**

 **홀로그램: 한계를 곧 넘길거야.**

 **승진 : 죄송합니다.**

 **홀로그램: 넘어가는 영혼들이 늘어나면 시스템이 흔들려.**

 **오류가 심하게 걸리면 아예 페기처분이 될 수가 있어.**

 **승진 :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되었나요?**

 **홀로그램: 진행중이야. 변수들을 줄이도록 하자.**

 **승진 : 관례를 어길 수 있나요? 허락을 받았어요?**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는 한 명의 직원.

홀로그램의 환영이 희미해지면서 지지직거린다.

최승진은 곧바로 기마자세를 잡고 기를 보내기 시작한다.

 **홀로그램: 아니, 규칙들은 그대로 적용돼.**

사라지는 홀로그램.

오렌지 크리스탈에서 5개의 광선이 튀어나온다.

국정원 직원들의 빨간색 빈디를 쏘는 크리스탈 광선.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직원들, 그들의 눈은 다운로드 받는 동안 검게 변한다.

**S #27. 대전시민천문대 앞마당– 밤**

**유성우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

**RED 캠코더를 들고 하늘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이혜안.**

**그녀는 야간 투시 쌍안경을 김도원한테 건네준다.**

**김도원은 곧바로 쌍안경을 들고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다.**

**S #28. 야간 투시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밤하늘 : 김도원 시선**

**유성우들과 별들이 녹색으로 보인다.**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하늘을 휘젓고 다닌다.**

 **도원(V.O.) : 저기 날라다니는 물체들 보이지.**

 **혜안(V.O.) : 플라즈마 전기 탐침기들이야.**

 **도원(V.O.) : UFO로 보이는데.**

 **혜안(V.O.) : 낮에도 날아다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어.**

 **도원(V.O.) : 무슨 메시지인지 궁금하다.**

 **혜안(V.O.) : 코드를 풀어야지. 날짜, 시간, 경위도 좌표를**

 **해독하면 되거든.**

 **도원(V.O.) : 코드는 점성술이나 역학과 관련 있어?**

 **혜안(V.O.) : 전혀. 그런 것들은 다 뻥이야.**

 **도원(V.O.) : 아는데로 디 가르쳐줘라.**

 **혜안(V.O.) : 내 말 못 믿을걸.**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유성.

**S #29.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 – 낮**

**앉아서 별들을 관찰하는 학부들과 아이들.**

**상영되는 별자리들을 입을 벌리면서 구경하고 있다.**

맨 앞에 앉아 있는 김상현과 다른 국정원 직원 한명.

시간을 확인하는 김상현. 오후 5:31 P.M.

멈춰지는 시간, 국정원 직원 2 명 빼고 모두 다 기억이 조정되고 있다.

김상현과 다른 국정원 직원은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

천체투영관 벽에 생기는 플라즈마 문.

박중석이 반대편 자리에 튀어나와서 플라즈마 문을 향해서 뛰어간다.

그의 손에 든 쇠파이프가 산만하게 흔들거리고 있다.

권총을 들고 마구 쏘기 시작하는 김상현.

몸을 굴리면서 숨는 박중석.

 **상현 : 다른 사람들 다치니까 멈춰라. (총을 내리면서)**

 **싸워서 넘어가.**

다른 국정원 직원은 계속 총으로 박중석을 겨냥하고 있다.

 **중석 : 둘 다 던져.**

김상현은 총을 집어들고 던져버린다.

따라서 총을 던지는 국정원 직원.

자리로 돌아가서 곤봉 2개를 챙기는 김상현.

박중석은 그들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중석 : 어떻게 알아냈어?**

 **상현 : 어쭈. 반말하네, 막 나가기 시작했군.**

 **중석 : 인원 수가 좀 모자른 것 같은데.**

 **상현 : 짐승아, 사고 그만쳐라. 말 안 들으면 맴매한다.**

 **중석 : 너희들은 기계들일 뿐이잖아.**

 **상현 : 여기서는 너나 나나 생물학적인 기계들일 뿐이야.**

 **중석 : 내가 전원을 대신 꺼줄게.**

쇠파이프를 날리는 박중석. 김상현은 곤봉으로 쇠파이프를 막는다.

국정원 직원은 곧바로 곤봉을 휘둔다.

몸을 앞으로 날리면서 다른 국정원 직원과 몸을 부딪히는 박중석.

쇠파이프로 국정원의 다리를 강타한다. 쓰러지는 국정원 직원.

중석은 곧바로 날아오는 김상현의 곤봉을 쇠파이프로 간발의 차이로 막아낸다.

 **중석 : 차이가 좀 나는데.**

 **상현 : 말이 많아.**

 **중석 : 약올리면서 이겨주는게 예의잖아.**

절뚝거리는 국정원 직원을 향해서 파이프를 날리는 박중석.

뒤로 빠지면서 피하는 국정원 직원.

김상현은 그 틈을 타서 박중석을 공격한다. 중심을 잡고 막는 박중석.

**김상현의 몸이 오히려 뒤로 밀린다.**

**동시에 치고 들어오는 국정원 직원들.**

**몸을 돌리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박중석.**

**발로 돌려차기를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박중석.**

**곤봉들이 좌우로 치고 들어온다.**

몸을 숙이고 쇠파이프로 반원을 그리는 박중석.

튕겨나가는 김상현의 곤봉. 그 반동을 이용해 국정원 직원의 어깨를 강타한다.

동시에 국정원의 곤봉에 팔을 맞는 박중석.

곤봉을 버리고 박중석을 태클하는 김상현.

같이 쓰러지는 박중석과 김상현,

땅바닥에 굴면서 잔펀치들을 날리는 2 사람.

국정원 직원은 곤봉으로 박중석의 등을 갈긴다.

김상현은 상위포지션을 잡는다. 곧바로 박중석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온힘을 쓰면서 김상현의 팔을 풀려고 하는 박중석.

집중하는 박중석. 그의 파란색 빈디가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괴성을 지르며 김상현을 던져버린다.

날아가는 김상현. 잽싸게 일어나는 박중석.

국정원 직원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간다.

 **중석 : 이제 끝내자.**

주먹으로 훼이크를 날리는 박중석.

국정원 직원은 곤봉으로 박중석의 팔을 내리찍으려고 한다.

그 틈을 타서 라이트를 날리는 박중석, KO 당하는 직원.

박중석은 곧바로 누워있는 김상현을 향해서 간다.

앞발차기로 김상현의 얼굴을 차는 박중석.

등을 어루만지면서 천천히 플라즈마 문을 향해서 가는 박중석.

신음 소리를 내면서 겨우겨우 한걸음씩 앞으로 걸어나간다.

문앞에 멈추고 몸을 돌리는 박중석.

그는 정중하게 누워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 인사를 한다.

 **중석 : 잘 놀았다.**

**몸을 돌리는 박중석. 플라즈마 문의 액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정신을 차린 김상현은 발목에 있는 권총을 재빨리 꺼낸다.**

**박중석의 등을 겨냥하는 김상현. 숨을 가다듬고 조준을 한다.**

**방아쇠를 당기는 김상현. 등에 총알 맞으면서 문을 통과하는 박중석.**

**S #30. 오피스텔– 밤**

비좁은 원룸 오피스텔. 단전호홉을 하는 오현아.

눈을 지그시 감기 시작한다. 반짝거리는 파란색 빈디.

**S #31. 오현아의 기 수련 과정: 몽타쥬**

1) 오현아의 뇌속으로 들어간다, 송방울샘이 심장처럼 박동거리기 시작한다.

2) 디지털로 변하는 오현의 몸, 각 사크라가 빛나기 시작한다.

3) 기운들이 각 사크라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동거리고 있다.

4) 몸이 뜨기 시작하는 오현아. 부양공중을 하고 있다.

5) 파란색 기체들이 오현아의 얼굴 근처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6) 눈을 뜨는 오현아. 오현아의 머리 근처로 모이는 파란색 기체 덩어리들.

오현아의 눈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기체 덩어리들을 흡수하는 오현아의 빈디.

오현아의 검은색 눈에서 이상한 광채들이 번들거리고 있다.

7) 오현아의 명상: 그녀는 해변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빨간색, 파란색, 금색 형체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

각 형체들이 오현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오현아.

8) 눈을 뜨면서 용울음소리를 내는 오현아.

**S #32. 지하철역 입구 – 아침**

**다급하게 출근하는 사람과 같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오현아.**

**그녀는 카보드로 만들어진 팻말를 들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를 발견한다.**

‘대중의 신뢰를 잃었으면서, 또 무슨 말장난하냐! 진실을 원한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황급히 뒤돌아보는 오현아. 최승진이 그녀를 향해서 다가온다.

 **현아 : (옆으로 빠지면서) 안녕하세요.**

 **승진 : 드디어 깨어났군.**

최승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오현아.

 **승진 : 그들은 그냥 부속품들일 뿐이야.**

 **현아 :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승진 : 이용 가치가 있지. 너도 마음대로 그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

 **박중석처럼 현란하게 살던지, 돈을 긁어모아서 왕비처럼 살던지.**

 **현아 : (비이냥거리면서) 미파람에 돼지 불알 놀 듯 하잖아요.**

 **(비웃으며) 수비는 항상 뚫려요.**

 **승진 : 마음대로 생각해라.**

 **현아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니까. 진리잖아요.**

최승진은 가볍게 손을 뻗어서 오현아의 팔꿈치를 잡는다.

팔을 뒤로 제끼면서 피하는 오현아.

다른 손으로 오현아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최승진. 그는 그녀의 팔을 잡는다.

 **승진 : 같이 가자.**

 **현아 : (최승진의 손을 풀면서) 휴대폰 항상 켜놓을테니까 추적하세요.**

**저는 이만 바빠서.**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오현아.

최승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를 시작한다.

 **승진 : 임플란트했어.**

미소를 지으면서 흐믓해하는 최승진.

**S #33. 지하철 안 – 아침**

주위 사람들을 보는 오현아. 다들 휴대폰이나 태블랫 PC를 쳐다보고 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의 기운을 읽는 오현아.

그 남자 옆으로 가서 태블랫 PC를 몰래 훔쳐본다.

세계 타이틀 권투 매치를 보는 오현아. 그녀의 파란색 빈디가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눈이 순간적으로 검은 색으로 변하며 선수들의 동작들을 다운받는 오현아.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오현아를 쳐다본다. 오현아를 향해서 태블랫 PC를 넘기는 남자.

오현아는 팔을 뻗어서 그것을 잡는다. 맨살에 빛나는 RFID 임플랜트.

**S #34. 성당 로비 – 아침**

폴더를 들고 서성거리면서 기다리는 윤석현.

**이혜안은 캠코더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혜안 : (가방을 주면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텐데.**

 **석현 : (받으며) 무의미해. 이제 곧 혼돈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체제가 무너질거야.**

그는 어항의 유리벽에 손을 갖다댄다.

 **석현 : (물고기들을 쳐다보며) 얘내들은 자기가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혜안 : 알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폴더를 꺼내서 종이 한장을 이혜안한테 건네주는 윤석현.

종이 안에 있는 그림을 쳐다보는 이혜안.

원으로 만들어진 미로, 그 속에 태극 음양이 그려져 있다.

 **혜안 : 뭐예요?**

 **석현 : 우리가 사는 곳.**

슬퍼하는 이혜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석현 : 너도 깨달을 거야. 다 가짜야, 여기도 가짜, 우리도 가짜.**

 **혜안 : ….**

 **석현 : 가봐라. 보고 나서 전화를 걸게.**

이혜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는다.

가방을 들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윤석현.

**S #35. 방송국 사무실 – 아침**

회의실을 들어가려고 하는 오현아.

김도원과 국장이 펼쳐놓은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

박중석 사진과 그가 목을 메달아서 자살했다는 문구가 보인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오현아.

스포츠신문을 자리 앞으로 가져와서 1면의 기사를 훑어본다.

 **국장 : 중석이가 자살할 줄이야. 오 PD, 이유를 알고 있어?**

 **현아 : 몰라요.**

 **국장 : 둘이 친했잖아.**

 **현아 : 예전에 그랬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김도원한테 신호를 보내는 오현아.

 **도원 : (스포츠 신문을 챙기며)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아 : 배웅해줄게.**

 **국장 : 그래라. 종종 놀러와.**

사무실을 나가는 오현아와 김도원.

 **도원 : 왜 휴대폰을 꺼놓고 다녀?**

 **현아 : 중석이가 어제 납치당했어. 아마 그들이 죽였을거야.**

 **도원 : 그들이라니, 그들이 누군데?**

 **현아 : 복잡해, 그냥 우리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현아는 김도원의 손을 잡고 나간다.

김도원은 오현아의 손과 팔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디지털로 변하는 그녀의 팔, RFID 칩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S #36. 방송국 빌딩 로비 – 아침**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혜안,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대기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김도원과 오현아.

 **혜안 : 오빠, 수호자들이 찾아오고 있어.**

이혜안은 재빨리 후문 입구을 향해서 걸어간다.

김도원은 오현아의 팔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현아 : 왜 따라가?**

 **도원 : 내가 믿는 동생이니까.**

 **현아 : 5차야, 알아듣게 말해라.**

김도원의 손을 뿌리치는 오현아.

김도원은 그녀의 반응에 서운해한다.

**S #37. 방송국 빌딩 후문 앞 – 아침**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방송국 노조원들.

그들 앞에 서 있는 빨간색 빈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 2명,

국정원 직원들은 주위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

 **노조원 : 우리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니죠?**

노조원은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 담배 연기를 일부러 날린다.

서로 쳐다보는 국정원 직원들.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른 곳으로 향한다.

 **노조원 : 씨발놈들아 잘 가라.**

후문을 나오는 오현아, 김도원 및 이혜안.

오현아는 갑자기 멈추며 국정원들을 쳐다본다.

국정원 직원들은 오현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

 **현아 : (소리지르며) 발견됐어!**

 **혜안 : (차를 손으로 지정하며) 빨리 타요.**

이혜안은 황급히 빨간색 SUV를 향해서 뛰어간다. 스마트 키홀더로 차의 시동을 건다.

재빨리 문을 열고 차의 시동을 거는 이혜안.

오현아와 김도원은 황급히 뒷좌석으로 들어간다.

차를 향해서 다가오는 국정원 직원들 2명.

그중 한명은 재빨리 차문을 열려고 한다.

문을 잡고 못 열게 하는 김도원.

 **현아 : (소리지르며) 잠가.**

재빨리 문을 잠그는 이혜안.

다른 1명은 차 못 가게 앞을 가로막고 있다.

못가고 우물주물하는 이혜안.

곤봉을 꺼내서 차를 내리찍는 국정원 직원들.

자동차 유리를 찍기 시작하는 직원들.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현아 : 밟아버려.**

 **혜안 : ….**

 **도원 : 자수하자.**

 **현아 : 개죽음을 당하자고?! 빨리 밟아.**

뒷좌석의 유리창문이 깨진다.

 **현아 : 그냥 가라니까.**

소리를 지르며 엑셀을 밟는 이혜안.

차는 순간이동을 하며 국정원 직원의 몸을 건너뛴다.

SUV는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치기 직전이다.

다시 순간 이동을 하는 차. 차는 직원들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S #38 차안– 아침**

깨진 창문을 조심스럽게 치우는 오현아. 차 안은 조용하다.

 **현아 : 저는 오현아라고 합니다.**

 **혜안 : 이혜안입니다. 언니 말 놓으셔도 돼요.**

 **현아 : (혼잣말로) 초면인데. (김도원한테) 어떻게 아는 사이냐?**

 **도원 :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났어.**

 **현아 : 도둑놈이구먼.**

 **혜안 : 아니요, 저는 매니저이고 도원씨는 제 고객이에요.**

다시 흐르는 어색한 침묵.

 **현아 : 너였어?**

 **혜안 : 언니 아니었어요?**

 **현아 : 너도 특별한 사람이잖아.**

 **혜안 : 글쎄요.**

 **현아 : 덕후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도원 : 하늘이 가르쳐줬지. 하늘은 거대한 LED 화면이야.**

 **TV를 보듯이 시청을 하면 이것 저것을 알 수 있어.**

 **현아 : 5차야, 가지가지 한다.**

오현아는 김도원의 어깨를 팔로 친다.

 **도원 : 누나도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4차에서 5차로**

 **올려주니까 기분 째지는걸.**

 **현아 : 진짜 4차는 나거든. (이혜안한테) 언니, 아까 그거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줘라.**

 **혜안 : 저 아니라니까요.**

 **현아 : 그럼 누가 했냐고? 저놈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치트키 갖고 삽질하네.**

울리는 김도원의 휴대폰. 김도원은 바지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그것을 빼앗아가서 전원을 끄는 오현아.

 **현아 : 위치 노출돼잖아. (이혜안한테) 어디 가는 거니?**

 **혜안 : 무릉도원요.**

 **현아 : 그곳을 가는 이유를 설명해봐.**

 **혜안 : 모든 존재의 원천이니까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원 : 나같은 사람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알까.**

 **현아 : 치트키 있어?**

 **도원 : 없어.**

 **현아 : 너는?**

 **혜안 : 저도 없어요. 언니 같은 사람들만 갖고 있어요.**

오현아는 생각에 잠기면서 김도원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김도원.

**S #39. 부검실 – 오후**

박중석의 시체를 검사하는 검시관.그의 시체 목에 걸려 있는 실리콘 목걸이.

빨간색 빈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이 지켜보고 있다.

검시관을 메스를 이용해서 시체의 명치부위를 찌른다.

메시를 이용해서 그의 복부를 연다.

칼을 박중석의 목 근처에 내리면서 땀을 딱는 검시관.

박중석의 목걸이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한다.

목거리가 쏘는 홀로그램에 오류가 일어난다.

박중석의 얼굴과 다른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가면서 보이기 시작한다.

 **검시관 : 이것 좀 봐주실래요.**

국정원 직원은 휴대폰을 검시관의 귀에 갖다댄다.

고음파 주파수가 들리기 시작한다. 기억이 조정되는 검시관.

국정원 직원은 목 근처에 놓여진 칼을 복부 근처로 옮긴다.

**S #40. 쇼핑몰 복도 – 저녁**

한적한 오후 시간, 고객들은 별로 없다.

빈 상가 앞으로 다가오는 오현아, 김도원, 이혜안.

김도원은 재빨리 문을 잡고 빈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잠겨져 있는 문 때문에 몸이 살짝 튕겨져 나간다.

 **도원 : 관리실 가보자.**

 **혜안 : 어떻게 하려고?**

 **현아 : 촬영을 위해 장소를 섭외한다고 뻥치는거지.**

 **혜안 : 통할까요?**

 **현아 : 백구야 명함 챙기고 다니지.**

 **도원 : 아니.**

 **현아 : 이빨을 까봐. 콰이콰이! 콰이, 발바닥 닳도록 콰이!**

김도원은 명령을 받고 재빨리 관리실을 찾아나선다.

 **혜안 : 언니, 왜 그렇게 도원씨를 무시하는지 여쭤봐도 돼나요?**

 **현아 : 옛날서부터 너무 졸졸 따라다녀서. 영심이라는 만화 봤으면**

 **알텐데. 제는 완전 왕경태야.**

 **혜안 : 한 번 찾아볼게요.**

오현아는 문을 향해서 다가간다.

오현아의 손을 잡고 막는 이혜안.

 **혜안 : 잠겨 있잖아요.**

 **현아 : 밑져봐야 본전이지.**

 **혜안 : 경솔하게 굴지 마세요.**

 **현아 : 조잔하게 굴지나 마.**

문을 잡는 오현아. 철컬소리가 나면서 열리는 문.

 **현아 : 언니가 만지니까 다 해결되잖아.**

 **혜안 : (문을 잡으며) 아직 시간이 안 되었어요.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현아 : 놔.**

 **혜안 : 지혜만큼은 제가 언니거든요. 좀 기다려봐요.**

오현아는 문을 잡고 있는 이혜안의 손을 뿌리친다.

빈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오현아.

**S #41. 쇼핑몰 상가 안 – 저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오현아.

갑자기 주위 환경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변한다.

검은색 바탕에 녹색 레이저 광선 벽이 생긴다.

 **현아 : 갇혀있었다니.**

녹색 광선 벽을 향해서 다가가는 오현아.

그것을 만지려고 하자 튕겨져 나가는 오현아.

**S #42. 쇼핑몰 복도 – 저녁**

열쇠뭉치를 들고 관리실 직원과 나타나는 김도원.

이혜안은 팔짱을 끼면서 김도원을 기다리고 있다.

 **도원 : 누나는?**

 **혜안 : 안에 있어.**

상가 안을 보는 김도원. 그의 눈에 상가는 텅 비어 있다.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오현아.

 **혜안 : 언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현아 : (혜안을 노려보면서) 꺼져.**

 **도원 : (동시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왜 안 보였어?**

 **관리직원 : (동시에) 문이 잠겨있을텐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현아 : (가로채며) 열려 있었어요, 문단속 좀 잘하시죠.**

 **(도원한테) 야, 나 간다.**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는 오현아.

김도원은 그녀를 쫓아가려고 한다.

 **관리직원 : 안으로 들어가실거예요?**

 **도원 : (멈추면서) 모르겠어요.**

 **혜안 : 쫓아다녀봤자야. 혼자 있게 놔두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

시계를 확인하는 이혜안. 5:26 P.M이다.

 **도원 : 아직이야?**

 **혜안 : 5분 남았어.**

 **도원 : 들어가자. (관리직원한테) 봐도 됄까요.**

관리직원은 고개를 끄덖인다.

**S #43. 성당 성전– 낮**

무릎을 꿇고 혼자서 기도하는 윤석현.

성전 안으로 걸어들어오는 최승진. 그는 칼을 들고 다가온다.

윤석현은 인기척을 느끼고 기도를 중단한다.

 **석현 : (일어나면서) 왠일인신가?**

 **승진 : 딱 알아보내.**

 **석현 : 나를 어떻게 찾았어?**

성당 시계는 5:31 P.M.이다. 고음 주파수가 들린다.

최승진의 시선에 사라지는 윤석현.

 **승진 : 당신은 유명한 BJ잖아. 정체를 밝혔다고, 꼬리가**

 **길면 잡히지. 자칭 인생 해커라고 자랑하면서 헛소리를**

 **퍼트리고 있잖아. 인터페이스님, 진실을 밝힌다는 분이**

 **가면을 쓰고 방송을 타네.**

가만히 서 있는 윤석현. 칼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칼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윤석현.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윤석현을 찾는 최승진.

5:32 P.M.이 되자마자 다시 그의 시야에 나타나는 윤석현.

 **석현 : 용건이 뭐냐?**

 **승진 : 도움을 요청하려고.**

 **석현 : 중도를 지킬래.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

 **승진 : 고결하신 신부님,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석현 : 그렇다고 그들의 본능을 어떻게 막을지. 어렵다, 어려워.**

 **승진 : 날뛰는 망아지들을 가둬놓는 수 밖에.**

 **석현 : 야생마들인데, 어떻게 막아.**

칼을 휘두르면서 윤석현을 위협하는 최승진.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하는 윤석현.

칼을 거두고 양복에 있는 거치대에 집어넣는 최승진.

**승진 : 대담하시네. (왼손으로 악수를 신청하면서) 존경한다.**

최승진의 뻗은 손을 잡는 윤석현. 윤석현의 눈동자가 변한다.

밝은 핑크색으로 변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다운로드가 끝나자마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윤석현의 눈에 흐르기 시작하는 피, 그는 피눈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S #44. 쇼핑몰 상가 안 – 저녁**

기다리는 이혜안과 김도원. 그는 시계를 확인한다.

5:33분을 가리키틑 시계.

 **도원 : 별일 없었던 것 같아, 왠지 싸하다.**

 **혜안 : 맞아. 오빠는 센스가 넘쳐.**

김도원은 출구를 향해서 나간다.

**S #45. 쇼핑몰 복도 – 저녁**

기다리는 빨간색 빈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 2명.

김도원은 그들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간다.

이혜안은 김도원의 팔짱을 잡고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려고 한다.

 **혜안 : 언니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갔을 거야. 누구한테 갔을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원 : (가로채며) 친구 별로 없어.**

 **혜안 : 어떻게 알어?**

 **도원 : 연인 관계였으니까.**

 **혜안 : (놀라면서) 나는 정말 눈치가 제로야, 정말 몰랐어. 오빠의**

 **얘기들을 듣고 언니와 박중석 사이에 썸씽이 있는줄 알았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인 2명.

 **행인1 : 마약이 문제야.**

 **행인2 : 더러워 정말. 박중석이 뭐가 아쉬어서 마약쟁이가 됬는지 모르겠다.**

 **행인1 : 날라리들은 가벼우니까 그런 짓들을 하지. 비정상인들한테 뭘 바래?**

멈추는 이혜안.

앞으로 가다가 혼자 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뒤돌아보는 김도원.

 **혜안 : 박중석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

 **도원 : 마약 과다 복용.**

 **혜안 : 친했잖아. 진짜로 중독자였다고 생각하는거야.**

 **도원 : 이것 저것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어쩌구저쩌구, 정말 헷갈려.**

**진짜로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을까, 형의 영혼을 너처럼**

**해킹할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

 **혜안 : 마음 해킹 가능한 사람들은 자유인들뿐이야.**

이혜안은 김도원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녀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김도원.

**S #46. 대학로 술집 – 밤**

소주를 원샷하는 오현아, 취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있다.

40대 초반의 미남 임규진은 그녀의 소주잔을 다시 채운다.

 **규진 : 천천히 마셔. 번개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현아 : 인생이 억울해서 그래.**

 **규진 : 빈소는 찾아갈거니?**

 **현아 : 아니.**

 **규진 : 너무 매정하다. 좋은 날들도 많았잖아.**

 **현아 : 그럼. 미스터 로보트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연극했을 때, (박장대소 터트리면서) 대사를 한 번 더듬었는데**

 **계속 더듬었잖아.**

술을 다시 마시는 오현아.

 **규진 : 안주라도 먹어.**

 **현아 : (침을 뱉고 나서) 배불러. 알아? 옛날 사람들은 다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쳤잖아. 요즈음 개나 소나 다 헝그리**

 **정신을 찾고 있어. 방송을 보면 다 먹는 프로그램들이야.**

 **다 허기진 좀비들이야.**

 **규진 : 일리가 있어.**

 **현아 : 오빠는 헝그리해?**

 **규진 : 신사임당 보면 환장하지.**

오현아를 자세히 관찰하는 임규진.

 **규진 : 너 갑자기 변했다.**

 **현아 : (귀를 가리키며) 뚫렸어.**

젯더리를 들고 가래를 계속 끓어모으는 오현아.

시원하게 침을 뱉는다. 일그러지는 임규진의 얼굴.

 **현아 : 담배나 피러 나가자.**

테이블 위에 있는 담배갑을 챙기면서 나가는 오현아.

휴대폰을 들고 따라나가는 임진규.

**S #46. 술집 밖– 밤**

담배를 피는 오현아와 임규진.

옆에서 담배를 피는 20대 후반의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

 **직장인1 : 맞다니까. 다 조작이야.**

 **직장인2 : 나는 믿는데.**

 **직장인3 : 바보냐?**

 **직장인1 : 시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부패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반응하는 오현아와 임규진.

 **규진 : 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해.**

 **현아 :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따로 있겠지.**

오현아와 임규진 앞으로 나타나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그는 후드티를 벗고 담배를 꺼낸다.

목에 걸려 있는 실리콘 목걸이를 쳐다보는 오현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서 고등학생의 얼굴을 본다.

빛나는 홀로그램 밑에 나타나는 박중석의 얼굴. 그녀만 중석의 얼굴을 알아본다.

 **중석 : 라이타 좀 빌려주실래요?**

 **규진 : 아가야, 숨어서 피워라.**

 **현아 : (라이터를 주면서) 괜찬아. (임규진한테) 휴가 나온 군인일거야.**

 **규진 : 미쳤어?**

임규진은 라이터를 빼았아간다.

 **규진 : (중석한테) 민증 보여줘봐.**

 **중석 :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규진 : 야, 혼나기 전에 집에 가라.**

 **중석 : (혼잣말로) 군인이라니까. (현아한테) 휴대폰 좀 빌려줘봐요.**

오현아는 자신의 휴대폰을 박중석한테 준다. 전화를 거는 척하는 박중석.

 **중석 : 나야. 15분후에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보자.**

전화기를 돌려주는 박중석. 그는 곧 자리를 떠난다.

 **규진 : 황당하다.**

 **현아 : 나도. 저 아이보니까 중석이가 생각나네. (눈치보면서)**

 **많이 닮았지?**

 **규진 : 귀가 뚫리니까 이제 눈이 뼜네 뼜어. 완전 딴판이야, 천하의**

**오현아도 많이 취했어.**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고 버리는 오현아.

**S #47. 마로니에 공원 근처; 편의점 밖– 밤**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이혜안과 김도원.

 **도원 : 근처에 있을거야. 여기서 항상 술 마시면서 노가리를 깠다니까.**

 **혜안 : 특별한 인연들이었나봐.**

 **도원 : 그다지. 결국 각자의 갈 길을 갔지.**

지나가는 학생들. 그들을 쳐다보는 2 사람.

 **혜안 : 특별한 쟤네들도 여기서 멋진 추억들을 만들겠지.**

 **도원 : 특별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네. 다들 특별해지고**

 **싶어하고 특별한 척하잖아. 현실은 잔인해.**

 **빛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잖아.**

 **혜안 : 오빠도 빛나잖아.**

 **도원 : 나름대로 빛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꼈어.**

 **해커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 운명이 다르잖아.**

 **혜안 : 모든 사람들이 특별해. 해커들은 일탈자들일 뿐이야.**

 **도원 : 왜 소수만 일탈할 수 있는 건지, 불공평해. 내가 너나**

**누나와 같은 레벨에서 놀 수 있기나해?**

 **혜안 : 레벨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통하면 그만이야.**

 **도원 : 마음도 레벨이 있다면?**

 **혜안 : 그래봤자 인간이라고.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여유가 된다면 주위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원 : 의식의 차이는 어떻게 하고.**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혜안.

**S #48. 마로니에 공원 : 농구장 근처– 밤**

비닐 봉지를 들고 기다리는 홀로그램 박중석. 그를 발견하는 오현아.

그는 봉지 안에 있는 식초를 꺼내서 오현아의 팔에 뿌린다.

 **현아 : 신기하다. 나만 너를 알아보는거야?**

식초 때문에 녹는 RFID 칩. 오현아의 팔에 연기가 솟아오른다.

 **중석 : 그럼.**

 **현아 : 살아있네. 잡히는 것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중석 : 그들은 함부로 사람을 못 죽여.**

 **현아 : 개소리하고 그래. 사람 함부로 죽이는 세상인데.**

 **중석 : 우리는 주인공들이야, 쉽게 죽을 수 없다고.**

 **죽으면 다시 로그인하면 그만이야.**

같이 대로변으로 가는 2 사람.

 **현아 : 가보니까 별로여서 다시 온거니?**

 **중석 : 세상을 구하려고. 33번째 리셋이 진행되는 것 같아.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아 :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중석 : 아니.**

대로변을 향해서 뛰어가는 박중석. 따라서 뛰는 오현아.

**S #49. 대학로 대로변– 밤**

택시를 잡는 박중석과 오현아.

길건너편에 나타나는 국정원 직원 3명.

그들은 오현아와 박중석을 발견한다.

 **중석 : 춘천요.**

멈추는 택시. 택시기사 시선에 중석이의 홀로그램이 보인다.

그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택시.

 **현아 : 갈 현금 있어?**

 **중석 : 너는?**

 **현아 : 돈이 똥구멍에서 튀어나오니. 몸이라도 팔까?**

 **중석 : (눈웃음치면서) 100원으로 어떻게 가니.**

 **현아 : 니 얼굴 팔아.**

 **중석 : 그럼 걸리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택시.

택시는 그냥 지나쳐 간다. 다음에 나오는 택시 문을 여는 오현아.

 **현아 : 춘천요.**

 **기사 : 아이고 죄송합니다. 퇴근하는 길이라서요.**

 **중석 : 팁 드릴게요.**

 **기사 : 얼마요?**

 **중석 : (웃으며) 삼만삼천원요.**

 **기사 : 갑시다.**

뒷좌석으로 들어가는 오현아와 박중석.

국정원 직원들은 택시를 지켜보고 있다.

휴대폰을 꺼내서 택시의 번호판을 찍는 국정원 직원 1명.

**S #50. 택시 안–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중석과 오현아.

라디오 뉴스가 배경에 들린다. 온갖 비리와 살인을 보도하고 있다.

 **현아 : 염쇄주의자라서 그러는데, 대중들한테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봐.**

 **다들 그냥 수긍하면서 살잖아.**

 **중석 : 정의가 이길꺼야. 나는 화이트 해커가 되기로 결심했어.**

 **지금 이 시스템이 70억 인구를 관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거든.**

 **현아 : 우리가 사는 세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 시뮬레이션도**

 **자연스럽게 확장 패치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중석 : 그것이 문제야. 다들 자신에 빠져 있어서 각자의 삶을 녹음하고 있잖아.**

**디지털로 변하면서 글리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기억력을**

**조정해도 한계가 있거든.**

라디오 방송을 교통 방송으로 돌리는 택시 기사.

 **현아 : 다시 오면 무조건 걸린다고 했잖아.**

 **중석 : 뒷문을 사용했어.**

 **현아 : 뒷문? 마징가가 하는 말은 다 구라구먼.**

 **중석 :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 됐지.**

 **현아 : 대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중석 : 괜찮아. 십원짜리 영혼이야.**

사색에 잠기는 오현아.

**S #51. 남춘천역 근처 건물 – 밤**

택시에서 내리는 오현아와 박중석.

오현아는 삼만삼천원을 현금으로 건네준다.

 **중석 : 부모님을 위해서 사줬어.**

 **현아 : 찌찔아, 자랑하고 난리야.**

 **중석 : 너도 곧 혜택을 누릴거야.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현아 : 잘나가는 것도 피곤할 것 같아. 너처럼 그냥 넘어갈래.**

 **중석 : 인생 뭐 별거 있나. 주위의 기운들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기회를 잡으면 돼. 그냥 보여,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현아 : 생략하고 싶거든.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최근에 취집이 내 목표였다니까.**

 **중석 : (웃으며) 니 성격에. 같이 들어갈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오현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박중석.

시간 경과.

팔짱을 끼면서 기다리는 오현아. 나오는 박중석.

그는 그녀한테 USB와‘섹스 인 더 시티’ DVD를 건네준다.

 **중석 : 매일 하나씩 인터넷에 뿌려.**

 **현아 : DVD네. 오호, 섹스 엔드 더 시티.**

 **중석 : 제목 다시 봐봐.**

 **현아 : 섹스 인 더 시티네.**

 **중석 : 그들은 기억들을 갖고 장난치고 있어. 당시 빌려줬을 때 제목**

**그대로야. 리셋이 조금식 진행되고 있어.**

 **현아 : 리셋이 리부팅이 아니잖아.**

 **중석 : 어찌됐든 다시 시작하는거니까.**

박중석은 능글맞게 오현아한테 다가가면서 어깨동무를 한다.

그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박중석.

 **중석 : 무릉도원 보여줄게.**

 **현아 : 어디 가는데?**

 **중석 : 근처에 있는 \*\* 비디오방. 나한테 무지 소중한 장소야.**

 **현아 : 거기서 총각 딱지라고 때었나봐.**

고개를 끄떡이면서 웃는 박중석.

어깨동무를 풀면서 박중석을 꼬집는 오현아.

 **현아 : 문이 열리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잖아.**

 **중석 : 새벽에도 열려. 같이 밤을 새우자. 혹시 알아, 오늘**

 **역사가 이뤄질지.**

 **현아 : ….**

 **중석 : 농담이야.**

다시 오현아의 손을 잡는 박중석, 오현아는 손을 허용한다.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2 사람.

**S #52. 남춘천역 근처 DVD방이 있는 건물 앞 - 밤**

도착하는 오현아와 박중석. 오현아는 DVD를 열려고 한다.

 **중석 : 거기 안에 다른 선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열어.**

 **현아 : 지금 볼래.**

DVD를 여니까 거기 안에 조그맣고 무지 앏은 라이터를 발견한다.

재빨리 라이터를 뺐는 박중석.

 **중석 : 한 번 밖에 못쓰니까 조심해. EMP 장치야. 개녜들은**

**트랜스휴먼들이야. 반은 기계라고.**

 **현아 : 헛소리하기는.**

 **중석 : 꼭 딴지를 걸어. 생각해봐. 기계가 어떻게 시간과**

**기억력을 조정하니.**

 **현아 : 알았어.**

그들 앞에서 나타나는 동네 건달 4명.

건달들의 안좋은 기운을 읽는 오현아와 박중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를 쳐다본다.

 **건달1 : 추하다, 왠 아줌마가 영계 데리고 다니네.**

 **건달2 : 돈이 많은가보네. 한 번 털어볼까.**

 **현아 : 양아치들아 왜 시비걸고 난리야!**

건달들은 단체로 박중석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다.

박중석은 발을 막지만 다른 주먹을 막지 못한다.

코를 맞으며 뒤로 물러나는 박중석.

오현아는 원투를 날리며 건달2를 기절시킨다.

 **현아 : 아가들아 집에 그냥 가라.**

 **건달1 : 닥쳐!**

건달1은 칼을 꺼내서 오현아를 향해서 찔러간다.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훅으로 건달1을 강타하는 오현아.

옆으로 기절하면서 쓰러지는 건달1.

박중석은 동시에 건달 2명을 향해서 몸을 날린다.

셋이서 같이 바닥에 쓰러진다. 왼쪽 발목을 접지르는 박중석.

얼굴을 드는 박중석, 그는 김상현과 국정원 직원 1명을 발견한다.

국정원 직원들은 곤봉을 들고 있다.

 **중석 : 빨리 도망가.**

 **상현 : 저승사자가 왔단다.**

김상현은 곤봉을 휘두르면서 누워 있는 박중석을 때린다.

그는 오른쪽 발을 들어서 곤봉을 막는다.

대퇴부를 맞으며 고통스럽게 우는 박중석.

오현아는 다른 국정원 직원을 향해서 돌진한다.

곤봉으로 오현아와 거리를 두는 국정원 직원.

미친듯이 곤봉을 휘두르면서 오현아를 뒤로 물러나게 한다.

동시에 곤봉으로 박중석의 얼굴으려 격타하려고 하는 김상현.

팔을 들어서 막는 박중석, 그의 팔이 골절된다.

건달들은 친구를 챙기면서 싸움을 무시하고 있다.

쓰러진 건달을 부축하고 떠나는 건달들.

 **현아 : 잠깐만요. 말로 해요.**

 **상현 : 딜레마야, 친구랑 같이 끝까지 싸울까, 혼자 도망갈까.**

 **다음을 기약하시지.**

김상현은 곤봉으로 박중석의 복부를 강타한다.

박중석은 몸을 굴리면서 겨우 피한다.

오현아는 김상현을 말리려하지만, 곤봉이 다시 그녀를 향해 날아온다.

김상현 곤봉을 버리고 권총을 꺼내서 하늘을 향해서 쏜다.

도망가는 건달들, 오현아, 박중석 모두 멈춘다.

 **현아 : 치사하게 무기를 사용하시네.**

 **중석 : (신음소리내면서) 라이터를…**

 **상현 : 야 저년을 겨냥해라.**

 **국정원 직원 : 예.**

국정원 직원은 총을 꺼내서 오현아를 겨냥한다.

김상현은 조심스럽게 박중석의 목걸이를 때어낸다.

홀로그램이 사라지면서 박중석 원래의 얼굴이 나온다.

 **중석 : 순순히 따라갈게, 그녀를 보내줘.**

 **상현 : 썅놈아, 너를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너는 그냥**

 **찌꺼기야.**

 **중석 : 자수할게. 다 가르쳐줄게.**

 **상현 : (총을 거두면서) 말해봐.**

 **중석 : 사람들이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어. 뒤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 일루미나티가…**

김상현은 박중석의 머리를 향해 권총을 쏜다.

머리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박중석.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오현아.

오현아의 시선. 죽은 박중석을 쳐다보면서 계속 소리는 지른다.

그녀를 향해서 권총을 겨냥하는 김상현.

총을 쏜다. 오현아의 머리를 스치는 총알.

김상현은 일부러 오현아를 맞추지 않았다.

 **상현 : 움직이면 죽는다. 순순히 따라가시지.**

 **현아 : 거부하면 어떻게 할건데.**

 **상현 : 생을 끝내야지.**

 **현아 : 자신 있으면 해봐.**

총을 치우는 김상현.

등을 돌리며 자리를 떠나는 오현아.

오현아의 등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

 **상현 : 스토리 진행을 위해 주어진 무적 설정을 믿고**

**너무 깝치지말아라. 중간에 게임오버 당하는 수가 있어.**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 계속 걸어가는 오현아.

그녀는 등을 한번도 돌리지 않고 일부러 천천히 걸어나간다.

 **국정원 직원 : 쏠까요?**

 **상현 : 감당할 수 있으면.**

국정원 직원의 총이 떨기 시작한다.

 **상현 : 됐어. 빨리 양아치들의 위치를 추적해. 시체는 내가**

 **처리할게.**

총을 내리고 건달들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가는 국정원 직원.

**S #53. 오피스 빌딩 옥상 –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윤석현.

옥상 문을 열면서 달려나오는 이혜안.

 **혜안 : (헐떡거리면서) 늦었죠, 죄송해요.**

 **석현 : (일어나면서) 전혀.**

윤석현은 악수를 신청하면서 이혜안을 향해 걸어간다.

 **석현 : 신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살았어.**

해맑게 웃으면 윤석현과 악수를 하는 이혜안.

윤석현은 최승진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정보를 이혜안한테 전달해준다.

 **석현 : 성경은 인간들이 지어낸 구두서인가 싶었는데, 교훈들을**

 **전달하는 지혜서인줄 알았는데, 예언서였어.**

 **혜안 : 희망을 가져요.**

손을 놓는 윤석현. 윤석현의 손을 양손으로 잡는 이혜안.

 **혜안 : 제가 막을게요.**

 **석현 : 고마워.**

윤석현은 조심스럽게 이혜안의 손을 푼다.

 **석현 : 요한계시록만 남았구나. 형제와 자매들은 들고 일어날**

 **거야. 하늘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혜안 : 같이 형제와 자매들을 선도해요.**

 **석현 : 먼저 대면해야 되겠어. 빈 공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줘라.**

 **이만 급해서 먼저 가볼게.**

윤석현은 건물 옥상을 난간을 행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

 **혜안 : 안돼!**

윤석현을 쫓아가면서 뛰는 이혜안.

윤석현은 난간을 뛰어넘어서 다이빙하는 자세로 아래로 추락을 한다.

전력질주를 하는 이혜안의 몸은 순간이동을 하면서 사라진다.

**S #54. 허공 : 오피스 빌딩 33층 근처 – 아침**

순간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윤석현의 몸을 잡는 이혜안.

윤석현의 몸에 전기 반응이 일어나면 시간이 멈춰진다.

 **석현 : 너도 오염돼었구나. 돌아버리겠다, 33층이야.**

 **혜안 : 게마트리아가 적용되네요. (웃으며)**

**하늘의 암시잖아요. 33.**

순간이동을 하는 이혜안과 윤석현.

**S #54. 오피스 빌딩 1층 근처 – 아침**

몸을 합친 상태로 착지를 하는 이혜안과 윤석현.

 **석현 : (박장대소를 하며) 이렇게 울컥한 적이 또 있었나 싶어.**

 **창조자와 대면했어야 했는데. 진실을 찾고 싶어따고.**

 **혜안 : 흥분하면 지는거예요.**

스스로의 머리를 치면서 자책하는 윤석현.

 **석현 : 순간 홀려서 세상이 망하는줄 알았어. 너도**

 **그런 생각한 적 있는지 궁금하다.**

 **혜안 : 왜 망해요.**

 **석현 : 홀려서. 언제부터그들의 능력을 습득했니?**

 **혜안 :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했어요. 신부님은…**

 **석현 : (가로채며) 수호자와 악수하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대체할까봐 겁이 난다.**

 **혜안 : 싫어요.**

 **석현 :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한테도 선택의 여지가**

 **과연 있을까? 앞잡이가 운명이면 참 안타까운데.**

 **혜안 : 저는 차라리 자유인이 될래요**

한숨을 쉬는 이혜안, 그녀를 격려하는 윤석현.

**S #55. 빌라 안 – 아침**

조심스럼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오현아.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60대 후반 오현아 母.

 **현아母 : 이지야, 오리엔테이션 재미있었어.**

 **현아 : 엄마, 나야. 엄마의 딸. 병식이 오빠는?**

 **새언니는 또 놀러나갔나봐. 오지랍을 더 넓히려고**

 **미션을 떠났겠지.**

 **현아母 : 때려치지마. 끝까지 버티라고. 나처럼 멈춰**

 **있지 말라고.**

 **현아 : 이모가 아니라 딸이라고.**

 **현아母 : 자퇴하고 나서 계속 후회가 돼. 졸업장이 중요하잖아.**

 **현아 : 엄마, 나야, 오현아!**

 **현아母 : (소리를 지르며) 공부하라고!**

 **현아 : 점점 심해지고 있네.**

오현아는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간다.

**S #56. 빌라 안방 – 아침**

오현아는 가족 앨범을 재빨리 찾아서 연다.

앨범을 열자마자 사진들을 둘러보는 오현아.

오현아와 그녀의 오빠 어릴적 사진들을 급하게 둘러보고 있다.

한 사진의 뒷배경이 하얗게 보인다. 사진을 꺼내는 오현아.

방으로 들어오는 오현아 母.

 **현아母 : 왜 피해 다니고 그러니.**

 **현아 : (혼잣말로) 말이 통해야지.**

오현아는 사진을 들고 오현아 母한테 그것을 보여준다.

 **현아 : 엄마, 왜 배경이 하얗게 지워졌는지 알아?**

 **현아母 : (사진들을 보면서) 바보야, 우리 아빠는 대머리였어.**

 **(사진속 오현아 父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웃으며) 너의 남자친구?**

 **현아 : 아빠잖아.**

사진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는 오현아.

기를 받아서, 눈빛이 변하면서 제정신을 차리는 오현아 母.

 **현아 : 사진이 왜 그래.**

 **현아母 : 너의 마음속에 있어. 무릉도원도 거기서 찾을 수 있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발견하는 순간 해방이 될 거야.**

**아집으로부터 해방되면 해탈할 수가 있지. 너한테 그런**

**기회가 오다니, 너무 좋다.**

아이처럼 기뻐하는 현아母.

 **현아 : 길이 안 보여**

 **현아母 : 자랑스러운 딸아, 찾을거야. 지금 너의 육체가 너를**

 **가둬놓고 있잖아. 의식을 키우면 찾을 수 있어.**

침대 위에 있는 사진을 들고 현아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현아母.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다..

오현아가 5살일 때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현아母 : 꿈동산 놀러갔을 때야.**

오현아 시선, 가족들을 보이나 뒤의 배경이 하얗게 보인다.

사진을 챙기는 오현아.

**S #57. 국정원 사무실– 아침**

원을 만들어서 서 국정원 직원 5명.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교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승진 : 곧 다가오는구나.**

 **상현 : 멋진 신세계가 드디어 왔네요. 1920년대부터 설계된**

**미래가 그대로 적용되네요. 그들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승진 : 그때부터 조작물들을 지시받았겠지.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훌륭한**

**신세계야. 역사를 바꿔도 책 제목즘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텐데.**

 **상현 : 훌륭한 신세계라고요?**

최승진은 자기 책생에 꽂혀 있는 옛날 서적을 꺼내서 김상현한테 준다.

‘훌륭한 신세계’라는 제목이 한자로 보인다.

책을 열고 새로로된 문장들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김상현.

그는 손가락을 써서 문장들을 훑어본다.

**S #58. 국정원 회의실– 아침**

홀로그램 영상이 회의실 테이블에 펼쳐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기를 모아서 영상을 가동시키고 있다.

**S #59. CCTV 동영상**

S #52. 남춘천역 근처 DVD방이 있는 건물 앞을 찍은 동영상.

오현아와 박중석이 건달들과 싸우는 모습이 재생된다.

지지직거리면서 변하는 동영상 내용.

오현아는 칼을 든 건달을 주먹으로 강타한다.

이상한 것은 방금 있었던 박중석은 사라지고 오현아 혼자 있다.

건달들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쓰러지는 건달. 나타나는 김상현과 다른 국정원 직원.

다시 지지직거리는 동영상.

김상현과 국정원 직원은 동영상에서 제거된다.

다시 지지직거리는 동영상.

오현아는 건달 2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한다.

**S #60. 국정원 사무실– 아침**

국정원 직원은 동영상을 편집하고 있다.

편집을 마무리하는 국정원 직원.

뒤에서 그 작업을 자세히 관찰하는 최승진과 김상현.

 **승진 : 동영상을 다시 보고 실수들을 찾아보라고.**

 **상현 :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승진 : 괜찮으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나가야지.**

 **매트릭스 안에서 글리치가 있으면 발견돼.**

수긍을 하는 김상현.

 **상현 : 언제 발표할까요?**

 **승진 : 타이밍을 맞춰야지.**

 **상현 : 게마트라 계산하겠습니댜.**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로 뛰어가는 김상현.

**S #61. 전자 회로**

전기광자가 이진코드 속에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다.

신호가 잡히면서 주파수가 울려퍼지기 시작한다.

전화 통화를 잡는 이진코드. 전기광자 하나 더 뜬다.

통화 음성에 맞춰 전기광자 2개가 태극 모양을 만들면서 돌아가고 있다.

 **현아(V.O.) : 대포폰 2개 사와라. 현금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고.**

 **도원(V.O.) : 어디에 있었어.**

 **현아(V.O.) : 알아서 뭐하게.**

 **도원(V.O.) : 걱정이 되서.**

 **현아(V.O.) :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이었는데, 웜홀을 발견해서**

 **그것 찾으러 삽질하고 다녔지. 지금 엄마 집이야.**

**너는 어디에 있어?**

 **도원(V.O.) : 앨리스를 찾으러 다니지.**

 **현아(V.O.) :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로 가서 이것저것을 따져야해.**

끊기는 통화.

**S #62. 빌라 밖: 아파트 단지와의 경계벽 – 오후**

비를 맞으며 혼자서 새도우 복싱을 하는 오현아.

입으로 기를 내뿜으면서 연타를 날린다.

우산을 들고 나타나는 김도원.

메티릭스의 네오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잠바를 입고 있다.

 **현아 : 미친놈아 더워 보인다.**

 **도원 : 주제에 맞는 코디라서. 등 뒤에 눈이 달렸어?**

 **현아 : (뒤돌아보며) 그들은 밖에서 안으로 시뮬레에션과 접속했고,**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고.**

바닥에 놓여진 줄넘기를 들고 뛰기 시작하는 오현아.

우산을 머리에 걸치고 어색하게 가죽잠바를 벗는 김도원.

 **현아 : 구했어?**

 **도원 :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대신 무전기를 준비했어.**

 **현아 : 잘했어 치타.**

 **도원 : 호랑이 장가가는 날인가봐.**

 **현아 : 순진하기는. 시스템이 충돌되면서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야.**

 **잘못된 출력일 뿐이라고.**

더블점프를 하면서 격렬하게 줄넘기를 시작하는 오현아.

**S #63. 대학로 골목길 – 오전**

검정색 양복을 입은 복면모자를 쓴 괴한 2명이 서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의 앞에 멈추는 ’01허 5531’번호판을 가진 승용차가 멈춘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오현아. 차 안에서 기다리는 김도원.

 **괴한 : 불렀는데, 돈부터 건네는 것이 예의잖아.**

 **인정할게. 프로는 프로야,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괴한(임규진)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굵게 낸다.

USB를 괴한(임규영)한테 건네주는 오현아.

 **현아 : 장난그만져라.**

복면모자를 벗으며 웃는 임규진과 그의 동생 임규영.

 **규영 : 누나 오랜만이야.**

 **현아 : 오랜만.**

 **규영 : 잘 지냈어?**

 **현아 : 그럭저럭. 사업은 번창하고 있데메, 연락하시지.**

 **규영 : (웃으며) 재미 좀 보고 있지.**

 **규진 : 안의 내용을 확인해봤어?**

 **현아 : 아직, 컴퓨터가 무서워서. 규영아 가짜 계정들이 걸리는**

 **것 아니지? 이것 때문에 콩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규영 : 나한테는 껌이야.**

 **현아 : 부탁한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임규영은 자리를 떠난다.

그가 떠나자 차에서 내리는 김도원.

 **도원 : 안녕하세요, 오현아의 옛 남자친구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임규진은 놀라면서 오현아와 김도원을 번갈아서 쳐다본다.

 **규진 : (인사를 어색하게 하며) 안녕하세요, 임규진입니다.**

 **도원 : 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요.**

 **규진 : 그렇군요.**

 **현아 :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도원 : 누나가 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했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저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있나요?**

임규진은 능글맞게 웃으며 오현아를 쳐다본다.

 **규진 : 그럼요.**

 **현아 : 중석이와 있을 때 뒷담화를 많이 했지.**

 **규진 : 도원씨는 양반이 되기 글렀군.**

어색하게 김도원과 임규진을 번갈아 보는 오현아.

 **현아 :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규진 : 남자친구들 많잖아. 도화살이 넘쳐. 옛 남자친구들을 부르면**

 **졸졸 따라다니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현아 : 닥쳐라.**

차문을 열고 승용차로 들어가는 오현아.

김도원과 임규진 둘 다 오현아를 따라서 차에 탑승한다.

**S #64. 납골당 안 – 낮**

아버님의 납골함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오현아.

김도원은 억지로 묵념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임규진을 힐끔힐끔 쳐다본다.

임규진은 소주병을 열어서 훌쩍훌쩍 마시고 있따.

 **도원 :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

 **규진 : (소주병을 들면서) 추모하는데 양식이 있나.**

그들의 얘기를 무시하며 기도를 마치는 오현아.

곧바로 임규진이 들고 있는 소주병을 낚아채며 시원하게 한모금을 마신다.

 **도원 : 나는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최소한 지켜야한다고 생각해서.**

 **현아 : 맞는 말이야.**

 **규진 : (미안해하면서) 황당해서 마셨어.**

 **현아 : 나도야.**

 **규진 : 너 돌았나 싶어서.**

떨어진 휴지를 보고 집중을 하는 오현아.

 **현아 : 1차는 점이나 선이라고 치자. 2차는 뭔지 맞쳐봐.**

 **규진 : 도형들이겠지.**

 **현아 : 그럼 3차는?**

 **도원 : 입체들이지.**

 **현아 : 그렇지, 플러스 공간. 그래서 우리 눈은 모든것을 3차로 보지.**

 **그 다음은 뭔지 보여줄게.**

손을 돌리면서 휴지를 허공으로 올리는 오현아.

휴지는 임규진의 얼굴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현아 : 3차 다음에 4차잖아. 3차들이 겹치면서 움직여.**

 **기가 이동하면 입체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운동한다고.**

 **규진 : 말도 안돼.**

 **도원 : 그 다음은?**

 **현아 : 시간이겠지.**

 **도원 : 시간 다음에 뭔지 알아?**

 **현아 : 몰라, 천국 아니면 사후 세계겠지.**

 **도원 :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현아 : (말을 가로채며) 다 이론들일 뿐, 과학은 거짓말들이야.**

**프로퍼갠더로 사용되었잖아. 진화론만 보더라도 얼마나 웃긴지**

**알잖아. (김도원을 향해) 기술은 진짜니까 더 이상 따지지마.**

손을 푸는 오현아, 휴지는 바닥에 떨어진다.

**S #65. 납골당 주차장 – 낮**

주차된 렌터가 앞에서 담배를 피는 오현아와 임규진.

 **현아 : (고개로 지정하면서) 저기 보여.**

 **규진 : 개성이잖아.**

 **현아 : 거리가 약 40km야. 지구가 둥글면 100미터 정도 아래에**

 **있어야 하잖아. 어떻게 보이는지 잘 생각해봐.**

 **규진 : 모르겠다.**

캔 커피를 3개 들고 다가오는 김도원.

음료를 주고 나서 차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키는 김도원.

 **도원 : 여기는 거대한 어항이라고 밝히는거지.**

 **현아 : 빙고.**

 **규진 : 어항이면 물에 잠겨 있어야 하는 거잖아.**

 **현아 : 숨쉬는 공기가 물이거든, 습도라는 단어를 잘 곱씹어봐.**

담배를 버리고 캔커피를 원샷하는 임규진.

사진을 꺼내서 뒷배경을 확인하는 오현아. 뒷배경이 여전히 안 보인다.

 **도원 : 다음은 어디야?**

 **현아 : 꿈 동산.**

 **규진 : 처음 듣는데.**

 **현아 : 네비 찍으면 나오겠지.**

네비를 찍는 김도원.

 **도원 : 놀이공원은 없고 이상한 곳만 나와.**

 **현아 : 강북구에 있는 놀이공원일텐데. 규진아 우리 소풍갔던**

 **곳 있잖아.**

 **규진 : 그런 곳 기억 못하는데.**

 **현아 : (혼잣말로) 임플란트된 기억인가.**

혼란스러워하는 오현아.

**S #66. PC방 – 낮**

서치 엔진을 열면서 꿈 동산을 찾는 오현아.

검색을 누르니까 찾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가족 사진을 화면 앞에 놓고 그것을 뚫어기제 쳐다본다.

김도원은 옆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쇼파에 앉아서 졸고 있는 임규진.

 **현아 :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도원 : 어머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했잖아, 혹시 기억들이**

 **서로 뒤엉키신 것 같아.**

 **현아 : (사진을 지정하며) 이것이 열쇠야. 잘 보라고.**

 **도원 : 해답이 안 보여.**

미안한 눈빛을 보내는 김도원.

사진을 들고 자신의 눈앞으로 들이미는 오현아.

 **현아 : 야, 중석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는데로 말해봐.**

 **도원 : 수면제 과다복용.**

 **현아 : 나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둘 중 하나는 틀려.**

**계속 메뉴얼이 변하고 있네.**

그녀는 사진을 김도원한테 준다.

서치 엔진의 지도를 여는 오현아.

임규진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휴대폰을 건넨다.

 **규진 : 규영이야.**

 **현아 : (휴대폰을 받으며) 시키는데로 했겠지.**

 **규영(V.O.) : 먼저 확인했어. 중석이형 교주 같아. 사이비 종교**

 **퍼트리는 것 같은데. 바이럴 마케팅해도 되나 싶어서,**

 **사람들이 형을 또라이로 기억할까봐. 내일 발인을**

 **해야하는데, 괜히…**

 **현아 : (말을 가로채며) 중석이의 유언이었어.**

 **규영(V.O.) : 내용을 알기나 하는 거야.**

 **현아 : 알아. 시키는데로 해.**

 **규영(V.O.) : 하지만…**

전화를 끊고 임규진한테 휴대폰을 돌려주는 오현아.

**S #67. 퍼지는 박중석의 동영상 : 몽타쥬**

1) 동영상을 보는 컴퓨터 동아리 대학생들.

나이가 좀 있는 복학생 2명은 화면 앞에 앉아 있다.

중화요리가 도착하자마자 후배들은 동아리 방문을 연다.

 **대학생1 : 황당하다.**

 **대학생2 : 정신분열증 환자였을거야. 미친 연기 존나**

 **잘했잖아.**

 **대학생1 : 10개나 다운받았는데, 더 볼래?**

 **대학생2 : 별로. 밥이나 먹자.**

2) 여자 직장인은 퇴근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그녀는 검색창에 뜨는 박중석 관련 기사를 클릭한다.

3)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여는 고등학생.

여자 연예인의 글을 보고 박중석의 동영상에 클릭을 한다.

4)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음모론자.

박중석의 동영상을 끄고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음모론자 : (통화하면서) 다 봤어? 오늘 방송 때릴까?**

5) 아프리카 TV에서 중계되는 박중석의 동영상.

실시간 채팅에 봇물처럼 터지는 시청자들의 댓글들.

**S #68. 은행 ATM 앞 – 밤**

건물 안에서 현금을 꺼내는 임규진.

김도원과 오현아는 유리벽을 통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도원 : 남자들이 홀리는 것을 보면 참 신비하지.**

 **현아 : 깨어나서 밀당녀로 신분 상승을 했어. 그래서 규진이가**

**나를 챙겨주는 거야, 됐지?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를**

**회상해보라고. 너한테 나는 항상 성가신 존재였으면서.**

 **도원 : 특별한 존재였어.**

김도원을 쳐다보는 오현아.

그녀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웃는다.

 **현아 : 그것봐, 이제 요녀로 다시 올라갔어. 당근 줄테니까**

 **채찍 준비해와라.**

오만원 화폐뭉치를 들고 나오는 임규진.

그는 곧바로 그것을 오현아한테 준다.

 **현아 : 중석이 발인하러 가야지.**

 **규진 : 같이 가자.**

 **현아 : 싫어. 어차피 가짜 시체잖아.**

 **규진 : 네가 안가면 나도 안가.**

 **현아 : 위험하니까 빠지삼.**

 **규진 : 너를 보호하기로 약속했잖아.**

 **도원 : 제가 보호할게요.**

 **규진 : 고마운데, 좀 생각해보자고. (현아한테) 칼리시,**

 **날라리와 모범생을 보좌관으로 임명하시지.**

 **(무릎을 꿇으며) 여왕님. 마땅히 물려받아야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받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임규진을 밀어내는 오현아.

 **현아 : 알았으니까 내일 새벽 5시에 보자고.**

 **규진 : (몸을 일으키면서) 다들 우리집에서 그냥 숙박하지 그래.**

 **현아 : 걸릴 것 같아.**

 **규진 : 오버하고 그래.**

 **도원 : 엮이게 되는 사람들 다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아 : 나는 그냥 사우나에서 잘 거야.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사우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현아.

그녀를 뒤따라가는 김도원과 임규진.

**S #69. 사우나 남자 수면실 – 밤**

같이 누워 있는 김도원과 임규진.

임규진은 스마트폰으로 알람시계를 맞추고 있다.

 **도원 : 형, 세상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우리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은 유효할까요.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규진 : 나도 몰라. 여기는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노는 놀이터인**

 **것 같아. 아니면 거대한 무대인가. 모든 세계는 하나의 무대이며,**

 **모든 남녀들은 그냥 배우들일 뿐이거든. 다 등장과 퇴장이**

 **있고, 각 개인은 여러 배역을 연기하잖아.**

 **도원 : 세익스피어네요.**

 **규진 : 나도 한 때 꼴깞을 떨었어. 너만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두 사람.

 **규진 : AS 기사들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

 **도원 :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규진 : 그들은 이곳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알까?**

 **도원 : 맨 윗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규진 : 그렇겠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 만나고 싶다.**

 **도원 : 저도 그래요.**

사색에 잠기는 김도원, 골아떨어지는 임규진.

**S #70. 사우나 여자 수면실 – 밤**

반듯하게 누워서 단전호흡을 하는 오현아.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숨을 길게 들어마시고 있다.

**S #71. 오현아 명상: 북서울 꿈의숲**

누렁이와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물을 캐는 오현아 母

어린 오현아와 그녀의 오빠 오병식은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

 **현아母 : 뚱자, 빈 공간들을 채웠니?**

 **현아 : 엄마 드림랜드 가자.**

 **병식 : 엄마 사랑해. 드림랜드 가자.**

 **현아母 : 뚱땡아 조만간 집에 갈거야.**

울기 시작하는 오현아.

 **현아母 : 뚱자야, 쉬는 날에 데리고 갈게.**

 **현아 : 진짜로?**

 **현아母 : 그럼.**

 **병식 : 엄마는 약속 지킨 적 없잔아.**

다시 우는 어린 오현아.

**S #72. 사우나 여자 수면실 – 밤**

진땀을 흘리면서 명상에 깨어나는 오현아.

다시 단전호흡을 시도하는 오현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몸을 떤다.

그녀는 단전호흡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앉기 시작한다.

무전기를 누르고 김도원과 통화를 하려고 한다.

말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다시 자려고 애쓴다.

**S #73. 인천국제공항 항공 안 – 새벽**

기다리는 윤석현, 그의 옆에 2개의 거대한 여행가방이 있다.

배낭을 메고 더플백을 든 이혜안은 윤석현한테 다가간다.

 **혜안 : 목표값이 남극대륙이라고 했는데, 확실한가요?**

 **석현 : 남극대륙을 넘는 지역이 설정된 한계점이야.**

 **최소한 내가 판독한 예언코드는 그렇게 나왔어.**

 **혜안 : 저는 그대로에요.**

 **석현 : 무슨 꿍꿍이인지, 아마 알게 되면 놀라 자빠질거야.**

 **혜안 : 우수아이아라, 참 낭만적인 곳이네요.**

 **석현 : 아르헨티나에 아는 형님이 있어. 벽이 무너지면**

 **최대한 빨리 넘어가가야지.**

윤석현은 맞은편에 있는 최승진과 국정원 직원 2명을 발견한다.

그는 더플백 안에 있는 모자를 재빨리 꺼내서 그것을 쓴다.

이혜안도 최승진과 그의 일당들을 알아본다.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사진을 확인하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

 **석현 : (고개를 숙이며) 몇시야?**

이혜안은 휴대폰을 꺼내서 윤석현한테 보여준다.

새벽 5:27분을 가리키는 휴대폰 시간.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이혜안과 윤석현.

 **석현 : 오프라인으로 활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심했거든.**

 **혜안 : (소곤거리면서) 우리를 잡으로 온 것 같아요.**

스님맵시모자를 쓴 비구니를 발견하는 윤석현.

 **석현 : 저기를 봐.**

 **혜안 : 어떻게 잘못 판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석현 : 어떻게 100점을 맞추니. 예언코드를 맞추면**

 **신이지, 여기서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잖아.**

그들은 비구니의 스님맵시모자를 통해서 빛나는 파란색 빈디를 발견한다.

비구니는 운항정보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석현 : 차에서 만나자.**

최승진은 윤석현과 이혜안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

재빨리 몸을 돌리는 윤석현. 그는 여행가방을 끌고 출구를 향해 걸어간다.

태연하게 가방들을 들고 반대편으로 가는 이혜안.

이혜안은 대범하게 최승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눈이 마주치는 최승진과 이혜안.

그녀는 그의 눈기를 외면하고 최승진을 향해서 돌진한다.

**S #74. 인천국제공항 항공 밖 – 새벽**

재빨리 자리를 벗어나는 윤석현.

손목 시계로 시간을 확인한다.

걸어오는 중년부부와 부딪힐 뻔한 윤석현.

 **석현 : 죄송합니다.**

 **남편 : 급하신가봐요.**

 **석현 : 예. 저는 이만…**

 **부인 : (가로채며) 조만간 다시 보게 될거예요.**

 **도착지가 겹치네요. 여보, 우리가 도와준**

 **사람을 챙겨야지.**

 **남편 : 그럼. 빨리 가자.**

뛰면서 입구를 향해서 가는 중년부부.

윤석현도 중년부부를 뒤돌아보면서 재빨리 주차장으로 간다.

**S #75. 인천국제공항 항공 안 – 새벽**

최승진의 눈치를 살피면서 도망가는 이혜안.

이혜안은 몸을 꺽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국정원 요원 1명은 그녀와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한다.

벽에 걸려 있는 전자 시계를 훔쳐보는 이혜안.

그녀는 공항 시계를 확인하니까 5:30 AM을 가리킨다.

그녀는 최승진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는 운항정보판 앞에서 사진을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주위를 살핀다.

고음주파수가 들리면서 멈추는 모든 사람들.

몸을 옆으로 돌리고 멈추는 척하는 비구니.

비구니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보인다.

최승진은 두리번거리면서 환전소 쪽으로 걸어간다.

플라즈마로 된 문이 운항정보판에서 생성된다.

운항정보판이 벽 전체가 물로 변한다.

비구니는 아무 저항 없이 플라즈마 문을 통과한다.

뒤를 돌아보는 최승진.

 **승진: 멈춰!**

환전소 앞에서 주저앉는 최승진.

국정원 직원 2명은 최승진을 향해 전력질주를 하며 뛰어간다.

이혜안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기쁜 표정으로 방금 일어났던 일을 응원하는 이혜안.

이혜안 옆에서 서로 낄낄거리면서 웃는 중년부부.

부인은 이혜안의 어깨를 치려고 하자 남편은 그녀를 말린다.

남편은 양손으로 부인의 허리를 잡고 뒷걸음친다.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끌려가는 부인.

**S #76. 뉴스 보도 – 아침**

TV 화면에 연예 뉴스가 나온다.

박중석의 빈소를 찾은 여자 연예인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여배우: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항상 웃고 농담도 잘해서**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번 영화 결말도 차 안에서 연탄가스 마셔서 자살할 줄이야…**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억지로 우는 여배우.

**S #77. 사우나 라커룸**

구운 계란을 먹으며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오현아.

그녀 옆에 앉은 아주머니는 뉴스를 입을 벌리고 보고 있다.

 **현아 : 어떻게 생각해요?**

 **아줌마 : 한심하지. 애들이 숭배하는데. 공인들이잖아.**

 **현아 : 박중석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 당했어요.**

아줌마는 오현아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떠나는 아줌마.

**S #78. 국정원 지하 기계실 – 아침**

**비상발전기 뒤에 다시 모여 있는 국정원 직원들 5명.**

**물체를 작동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기가 약한 몇명은 몸을 풀고 있다.**

 **승진: 준비 됐지?**

**물체는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경악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든 국정원 직원들.**

**오렌지색 크리스탈들이 진동거리면서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할아버지 홀로그램.**

 **홀로그램: 벌써 4명이 넘어갔어. 한 해에 5명이 넘아가면**

 **대가가 너무 커. 체계가 무너진다고. 너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제할 수 없다고. 너희들은 백수들이 되기 싫잔아.**

 **승진: 망을 봐야 하는데, 게임이 너무 불리해서. (따지면서)**

 **적을 알면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자유인을….**

손으로 장풍을 쏘는 홀로그램. 몸이 날아가는 최승진.

 **홀로그램: 사회, 경제, 문화가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깨닫게 되면 좋겠어? 기억 조정이 풀리고**

 **의심이 많아지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설정들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랍 스프링이 여기서 일어날거야.**

바닥에 기어가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최승진.

김상현은 그를 향해서 다가간다.

손을 뻗어서 김상현을 징지시키는 홀로그램.

이진 코드로 변하는 김상현의 몸. 이진코드로 소멸되는 그의 팔과 어깨.

 **승진: (끙끙거리면서) 책임자는 나니까 나를 소멸시켜라.**

김상현을 풀어주는 홀로그램.

김상현의 팔과 어깨가 다시 재생되고 있다.

 **홀로그램: 미션을 수행해야지. 집중력들을 발휘해봐.**

사라지는 홀로그램. 터지는 보랏빛 크리스탈.

크리스탈들은 눈송이처럼 땅을 향해서 흩어지고 있다.

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국정원 직원들, 크리스탈 눈송이들을 흡수한다.

크리스탈의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는 모든 국정원 직원들.

**S #79.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 오후**

이혜안은 윤석현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혜안 : 잘 다녀오세요.**

 **석현 : 그럴게. (미소를 지으며) 꼭 돌아올거야.**

 **혜안 :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석현 : (당황하며) 다시 돌아온다니까.**

 **혜안 : 신부님, 미소 때문에 들통났어요.**

 **석현 : 거짓말 탐지기가 따로 없네.**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는 이혜안과 윤석현.

S #74 & 75에 나온 중년부부가 그들 옆으로 다가온다.

그들의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윤석현.

 **남편 : 메리스가 가니까 지카가 오네.**

 **부인 : 지카 다음에 뭐가 올까?**

 **남편 : 흑사병이겠지. 메뉴얼 보니까 가짜 병으로 겁주는 절차가**

 **있더라고. (박장대소를 하며) 텍스트 다음을 맞춰보자.**

 **부인 : (웃으며) 올 여름 롤링 블랙아웃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기야, 전기로 장난칠 것이 분명하다니까. 어게인 2011.**

 **남편 : 배추값에 목숨을 걸게.**

 **부인 : 내기하지 뭐. 뭐를 걸까?**

그들의 얘기를 듣는 이혜안과 윤석현.

 **혜안 : (소곤거리며) 정체가 뭘까요?**

 **석현 : (소곤거리며) 관광객들인 것 같아.**

 **혜안 : (소곤거리며)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석현 : (소곤거리며) 목걸이를 보라고. 집중해서 보라고.**

이혜안은 그들을 자세히 관찰한다.

윤석현은 그들을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건넨다.

중년부부는 윤석현을 알아보고 목례에 대한 답변을 보낸다.

**S #80. 오현아 오피스텔 – 오후**

오현아의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키는 최승진.

김상현과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방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다.

김상현은 오현아의 속옷 서랍을 열고 팬티를 꺼낸다.

그것을 코에 갖다대고 개처럼 킁킁거린다.

 **승진 : 아이씨, 미친놈아.**

 **상현 : 냄새로 추적하려고요.**

팬티를 바닥에 버리고 컴퓨터를 향해 가는 김상현.

 **승진 :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케이스가 처음이라서.**

 **인연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나봐.**

 **직원1 : 그냥 공개수배 때려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원2 : 이왕 모함할 것이면 그냥 풀어보시죠.**

 **상현 :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승진 : 자살 행위야.**

컴퓨터에 손을 갖다대는 김상현.

그의 손을 밀어버리는 최승진.

 **상현 : 한 번 도전해보죠.**

 **승진 : 너는 어려서 그래. 몸을 아껴야지. 같이 소멸 될 수 있어.**

 **상현 : 알아요. 누군가는 막아야 하잖아요.**

 **승진 : 그 다음은. 그 다다음은. 계속 깨어날텐데.**

 **상현 : 막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성공하면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승진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컴퓨터에 손을 올리는 김상현.

최승진은 김상현의 뺨을 때린다.

몸이 휘청거리지만 컴퓨터를 더욱 간절하게 붙잡는 김상현.

컴퓨터 화면이 여파로 인해 엎어진다.

 **상현 : 단축키가 필수잖아요. 컨트롤 C 더하기 컨트롤 V가**

 **정답인거 아실텐데.**

말리는 것을 포기를 하는 최승진.

입에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오현아의 컴퓨터를 흡수하는 김상현.

그는 컴퓨터의 전기를 온몸으로 받아낸다.

전기 때문에 타는 김상현의 몸. 그의 몸이 불타오른다.

김상현의 팔을 잡고 전기 일부를 흡수하는 최승진.

 **승진 : (부하들한테) 오현아 공개수배해. (김상현한테)**

 **남의 의식을 엿보니까 이상하지. 이제 네가 열쇠다.**

김상현의 다른 팔을 잡고 전기를 흡수하려는 다른 국정원 직원.

전기 충격 때문에 그의 몸이 튕겨져 나간다.

**S #81. 시청앞: 차안 – 오후**

운전을 하는 김도원. 뒷좌석에 같이 앉은 임규진과 오현아.

 **현아 : 덕후야, 사무실 가는 것 포기하자.**

 **도원 :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도 돼. 시간 많잖아.**

임규진은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본다.

 **규진 : 말세다, 말세야. 시위가 끝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도원 : 전체주의 세상이 오던가, 우리 모두 초인간이 되던가.**

 **트랜스휴머니즘이 시대가 열리면 끝나겠지.**

 **현아 : 지금 다 트랜스휴머니스트잖아. 개개인의 그릇은 제어장치이고,**

**기억력은 램으로 측정되며, 멘탈은 운영 체계로 결정된다고.**

**웃긴 것은 갈수록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규진 : 직업 정치인들은 소수잖아.**

 **현아 :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꼭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설계되어 있거든.**

 **도원 :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규진 : 개나 소나 다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은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고.**

운전석 목받침대를 때리는 오현아.

 **현아 : 도원아, 꼭 사무실 들려야 되겠어?**

 **도원 : 챙겨야하는 것이 있어서.**

 **현아 : 떠나는 사람은 나잖아.**

조용해지는 모든 사람들.

김도원은 라디오로 교통 방송을 킨다.

오현아 수배 관련 뉴스를 청취하는 탑승자들.

 **도원 : 사람들이 많네.**

차를 유턴하려고 하는 김도원.

**S #82. 탑승구 안 – 오후**

윤석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좌석에 앉는다.

중년부부는 그를 향해 다가온다.

 **석현 :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남편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트로이입니다.**

 **부인 : 저는 멜리사입니다.**

그들의 답변에 잠깐 당황하는 윤석현.

중년부부는 윤석현의 옆 자리에 앉는다.

부인은 손가방에 비닐봉지를 꺼낸다.

말린 무화과를 꺼내서 그것을 윤석현한테 건네준다.

 **부인 : 드세요.**

 **석현 : 교포들이신가봐요.**

 **남편 : (웃으며)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말린 무화과를 자세히 관찰하는 윤석현.

 **부인 : 드셔도 괜찮아요. 신비한 곳에 자라는 선악과입니다.**

부인은 말린 무화과를 남편한테도 건네준다.

부부는 윤석현 보란듯이 말린 무화과를 씹어먹기 시작한다.

그들이 그것을 삼키자 눈을 감고 무화과를 씹어먹는 윤석현.

 **남편 : 신부님, 금단의 열매인데 입맛에 맞으신가요?**

윤석현은 눈을 뜬다. 온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뒤로 걷는 사람들, 주변에서 말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

 **석현 : 너희들은 악마냐?**

 **부인 : 우리는 노이즈 펄스를 일으켜서 오동작 일으키는**

**존재들이야.**

윤석현은 그녀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는 윤석현.

그는 재빨리 가방을 열어서 성경을 꺼낸다.

남편은 차분하게 윤석현의 어깨를 잡는다.

윤석현의 몸이 벌벌떨기 시작한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뜨기 시작한다.

눈이 금빛으로 변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남편 : 진정해라. 우리는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글리치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바이러스일 뿐이라고.**

손을 놓는 남편, 풀리는 윤석현.

 **부인 : 우리와 같이 가실건가요?**

 **석현 : 넘어갈 수 있나요?**

 **남편 : 예. 카운트에 벗어나니까 막을 세력도 없어요.**

 **단, 뒷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수아이아에서 기다릴게요.**

 **석현 : 감사합니다. (절을 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뒤로 걸어가고 있다.

중년부부는 손을 잡고 각자의 손에 있는 장치를 만지작거린다.

몸이 뿌옇게 변하면서 사라지는 중년부부.

윤석현은 몸을 돌려 공항 복도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

주변 승객들은 더 이상 거꾸로 움직이지 않는다.

**S #83. 음식점 – 오후**

순대국을 맛있게 먹는 3 사람.

 **도원 : 최후의 만찬이네.**

그가 한 말에 밥 먹는 것을 멈추는 오현아와 임규진.

 **현아 : 분위기를 깨는데 일가견이 있다니까.**

혼자서 웃기 시작하는 임규진.

오현아는 김도원을 향해서 눈을 흘긴다.

서로 보면서 웃기 시작한다.

소주병을 들고 잔을 채우는 임규진.

 **규진 : 배신자를 밝혀야지.**

건배를 제의하는 임규진. 다 같이 소주를 원샷한다.

 **현아 : 너야.**

 **규진 : 섭섭하네.**

 **도원 : 농담이 심하다.**

 **현아 : 과거를 들추는 것이 특기잖아. 덕후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때가 되면 다 헤어지게 되있어.**

 **도원 : 배신자.**

 **현아 : 너도 배신해봐.**

소주병을 들고 임규진의 잔을 채우는 오현아.

 **규진 : (잔을 들며) 배신을 위하여!**

 **현아 : 위하여.**

그들은 김도원을 기다리고 있다.

잔을 겨우 드는 김도원.

 **도원 : 위하여.**

소주를 다시 원샷하는 3 사람.

임규진은 무식하게 순대국을 퍼먹기 시작한다.

오현아는 김도원의 시선을 회피하고 숟가락을 다시 든다.

**S #84. 이혜안 집 – 오후**

캠코더를 tv에 연결하고 밤하늘 녹화 영상이 나온다.

달을 중심으로 별들이 나열되어 있는 밤하늘.

16배속으로 재생되는 영상물.

이혜안은 노트를 들고 뭔가를 받아적을 준비를 하고 있다.

**S #85. 영상 녹화물**

16배속으로 돌아가는 영상물.

달전파(lunar wave)를 발견이 된다. 화면이 정지된다.

다시 달전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

영상물이 재생속도가 느린 화면으로 변경된다.

달전파가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느린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반짝거리는 속도가 엄청 빠른다.

 **혜안(V.O.) : 이번에는 판이 진짜 빨리 돌아간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16배속으로 돌린다.

**S #86. 이혜안 집 – 오후**

컴퓨터 앞에 앉은 이혜안.

지도에 숫자를 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노트 위에 적혀져 있는 숫자들이 보인다.

발견된 지역의 위도와 경도, 저녁인지 새벽인지 적혀져 있다.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시립도봉도서관이라는 장소가 보인다.

컴퓨터와 연결된 카카오톡 pc 버젼.

대화창에 ‘북서울꿈의숲 2; 서울시립도봉도서관 1’이라고 적혀져 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이혜안.

**S #87. 빌라 안 – 오후**

앨범을 들고 서 있는 국정원 직원들.

최승진과 김상현은 현아母를 심문하고 있다.

현아母는 그들을 신경쓰지 않고 흔들의자에 앉아 있다.

 **승진 : (김상현한테) 됐다. 우문우답 해봤자야. 그냥 가자.**

 **단서가 있잖아.**

김상현은 tv 리모컨을 들고 던져버린다.

 **상현 : 그냥 죽일까?**

김상현은 현아母의 목을 향해서 손을 뻗친다.

최승진은 김상현의 팔을 막는다.

 **상현 : 지 엄마가 죽었는데 빈소는 꼭 가야하잖아요.**

 **승진 : 오늘이나 내일 넘어가잖아.**

김상현은 최승진의 말을 듣고 화를 참는다.

 **승진 : 사진들이나 한 번 더 뒤져보자.**

최승진은 김상현을 억지로 끌고 나간다.

앨범을 들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그들을 따라서 나간다.

현아母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다.

 **현아母 : (혼잣말로) 새로운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실행될거야.**

 **우리 모두 어디서 사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S #88. 북서울 꿈의숲 – 오후**

인도에서 기다리는 오현아, 김도원 및 임규진.

오현아는 잔디로 가서 앉는다.

 **규진 : 벤치에서 앉지 그래. 옷이 더러워지잖아.**

 **현아 : 깔끔을 떨기는. 한 번 앉아봐. 땅의 기운을**

 **느껴보라고.**

김도원은 그녀 옆으로 가서 앉는다.

임규진은 날아다니는 비닐봉지를 향해서 걸어간다.

 **도원 : 형도 괜찮은 사람이야.**

 **현아 :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도원 : 취집을 제공해줄게. 여기서 좀 더 놀다가.**

 **현아 : 속세의 희노애락을 견딜 용기가 없어. 게임을**

 **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래. 다른 게임하는 것도**

 **쩔것 같아. 싸하게 살고 싶어.**

비닐봉지를 갖고 와서 옆에 앉는 임규진.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한다.

 **규진 : 옛날 생각이 나네.**

 **현아 : 우리는 추억덩어리들이잖아.**

일어나는 김도원. 그는 현아한테 무전기를 건네준다.

 **도원 :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있을게.**

 **규진 : 같이 있자.**

임규진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떠나는 김도원.

 **규진 : 왜 저래?**

 **현아 : 삐졌어.**

일어나는 오현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고개를 드는 오현아, 초승달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규진 : 장소를 알아야 하는데.**

 **현아 : 너무 쉬워. 깨는 맛이 있어야지.**

오현아는 걸어가기 시작한다. 뒤따라가는 박중석.

 **현아 : (초승달을 지정하며) 소원을 빌어봐.**

 **규진 : 보름달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잖아.**

 **현아 : 소원을 빌면 누군가가 들어줄거야.**

 **규진 : 빌어보지. 진달래꽃을 가실길에 뿌리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뿌린 꽃들을 사뿐히 짓밟고 아쉽게 떠나라.**

 **현아 : (웃으며) 아쉽게 가야지.**

박중석은 ‘015B –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S #89. 북서울 꿈의숲 주차장 – 오후**

시계를 확인하는 김도원. 오후 5:20분이다.

무전기를 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김도원.

말을 하기를 주저한다. 그는 하늘을 쳐다본다.

초승달을 넋을 잃고 쳐다본다.

다시 시계를 확인하고 무전기를 향해서 말하는 김도원.

 **도원 : 아무도 안 보인다. 오버.**

 **현아(V.O.) : 그냥 돌아와, 오버.**

 **도원 : 오늘 무슨 날인가봐, 초승달이 낮에 보이네.**

 **현아(V.O.) : 당연하지. 선녀가 승천하는 날이잖아. 잔말 말고**

**그네 근처에 기다리고 있을게.**

주차장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김도원.

그는 전력 질주를 하면서 오현아를 향해서 뛰어간다.

**S #90. 북서울 꿈의숲 – 오후**

헉헉거리면서 뛰어가는 김도원.

순간 이동을 해서 나타나는 국정원 직원 3명.

최승진과 그의 부하 2명이 김도원 앞을 가로막고 있다.

김도원은 사이드 스텝을 밟으며 앞으로 달려간다.

 **도원 : (무전기를 누르며) 왔어. 왔다니까!**

김도원은 주차장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한다.

그를 뒤따라가려고 하는 국정원 직원들 2명.

 **승진 : 유인하고 있어. (이어폰을 향해) 주차장 쪽으로 가니까**

 **생포해라.**

최승진은 여유있게 숲 안쪽으로 걸어간다.

최승진을 따라가는 국정원 직원 2명.

**S #91. 북서울 꿈의숲 – 오후**

그네에 앉아 있는 오현아.

주위를 살피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임규진.

오현아는 하늘을 쳐다본다.

오현아 시선. 이상한 이진코드로 덥히는 하늘.

 **현아 : 몇시야?**

 **규진 : 5시 29분.**

그녀는 하늘을 보면서 그네에서 일어난다.

 **현아 : 나는 이쪽으로 갈테니 너는 반대편으로 가.**

 **규진 : 그들이 나타나면?**

 **현아 : 유인책이라고 생각하렴.**

오현아는 하늘을 보면서 걷기 시작한다.

그녀를 쫓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임규진.

**S #92. 북서울 꿈의숲 주차장– 오후**

뛰는 김도원은 주차장에서 멈춘다.

허리를 숙이고 헐떡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는 김도원.

그는 고개를 들자마자 국정원 직원이 헤드락을 건다.

 **국정원 직원: 큰집에 가야지.**

김도원은 온힘으로 헤드락을 풀려고 한다.

그의 약한 힘에 냉소를 날리는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직원: 아가야, 잠을 자거라.**

팔에 힘을 주면서 김도원을 기절시키는 국정원 직원.

정신을 잃기 시작하는 김도원, 오른팔을 내려놓는다.

갑자기 테이저 총이 국정원 직원의 목에 겨냥된다.

 **혜안 : 가만히 있어라.**

김도원의 목을 천천히 푸는 국정원 직원.

김도원은 의식을 되찾고 있다.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애쓴다.

다시 넘어지자마자 국정원 직원은 목을 뒤로 제끼고 손으로 테이저를 낚아챈다.

이혜안은 다른 손에 있는 테이저 총을 발사시킨다.

생선처럼 펄덕거리면서 기절하는 국정원 직원.

 **도원 :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넘어가는지. 웃겨.**

 **혜안 : 우선 고맙다고 해야지.**

 **도원 :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주인공은 누나잖아. 나는 그냥**

 **보조인이어야 하는데. 정말 헷갈려 죽겠어.**

 **(허탈하게 웃으며) 혜안아, 현실을 이렇게 의심한 적 있니?**

 **혜안 : 가끔.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외부의 힘이 적용된**

 **것이 아니야, 그냥 아까부터 내가 오빠를 미행했을 뿐이야.**

이헤안은 기절한 국정원 직원의 몸을 뒤지기 시작한다.

수갑을 찾고 그것을 국정원 직원의 양손에 채운다.

그녀는 직원의 지갑, 권총, 열쇠고리를 챙겨간다.

 **도원 : 몰랐어.**

 **혜안 : (웃으며) 시선이 다른 곳에 꽂혀있잖아.**

정신을 차리는 국정원 직원. 그는 일어나려고 한다.

주먹으로 직원을 강타하려고 하는 김도원.

그는 중심을 잃는다. 직원은 어설픈 펀치를 피한다.

김도원은 직원을 향해 쓰러진다. 같이 엎어지는 2 사람.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는 김도원.

그는 재빨리 이혜안을 향해서 간다.

그녀는 다시 테이저 총으로 국정원 직원을 기절시킨다.

 **도원 : 누나한테 가봐야돼.**

 **혜안 : 다시 고맙다고 해야지. 급한 것 아는데 시간을 확인해봐.**

시계를 보는 김도원. 그는 좌절을 한다.

 **혜안 : 미안해.**

 **도원 : 가는 모습이라도 봤아야 하는데.**

 **혜안 : 다시 볼 수도 있어. 이번에 막히면 내일 새벽도 있으니까.**

 **도원 : 그것도 막히면 좋겠다.**

 **혜안 : 오빠, 보낼 사람은 그냥 쿨하게 보내야 돼.**

 **도원 : 알아.**

이혜안은 주차된 차를 향해서 걸어간다.

김도원은 처진 어깨를 겨우 들면서 그녀를 따라간다.

**S #93. 북서울 꿈의숲 – 오후**

나무 뒤에서 숨어서 분수대를 바라보는 오현아.

탈의실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임규진.

그녀는 임규진이 국정원 직원한테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최승진과 다른 국정원 직원은 분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시계를 확인하는 오현아. 5:30 P.M.이다.

야구모자를 쓰고 반팔티의 후드로 모습을 가리는 오현아.

그녀는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분수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고개를 드는 오현아.

최승진과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최승진이 고개를 돌리자, 직진하는 오현아는 왼쪽으로 몸을 튼다.

고음 주파수가 들린다. 5:31 P.M.이다

모든 주위 사람들은 멈춰 있다.

몸을 돌려 플라자 문을 찾기 위해 분수대를 바라보는 오현아.

오현아 시선

분수대 전체가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변한다.

검은색 바탕에 녹색 레이저 광선 벽이 생긴다.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오현아.

 **현아 : (혼잣말로) 나한테 다음 레벨이 없구나, 없어.**

멈춰 있는 척을 하는 오현아.

시간이 풀리자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도망을 간다.

**S #94. 패스트푸드 음식점 – 밤**

햄버거를 숨을 쉬지 않고 먹어치우는 김도원.

이혜안은 햄버거를 반 먹고 내려놓는다.

그들 사이에 놓여진 무전기.

김도원은 감자 튀김을 한손으로 짚으며 입안으로 집어넣는다.

 **혜안 : 내 햄버거도 먹을래?**

 **도원 : (감자튀김 계속 먹으면서) 어.**

김도원은 남은 햄버거를 입안으로 수셔놓는다.

 **혜안 : 언니 가고 나면 참 허탈하겠다. 나도 최근에 아끼는**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앞으로 기댈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돼. 오빠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있어?**

 **도원 : (음식을 씹으면서) 나는 항상 외톨이였어.**

 **혜안 : 나도 그래.**

이혜안이 먹다 남은 햄버거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혜안이 먹다 남은 감자 튀김을 집어먹으면서 일어나는 김도원.

 **도원 :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가는 김도원.

이혜안은 사색에 잠겨 있으면서 음료수를 마신다.

 **현아(V.O.) : 덕후야, 들리면 대답해라. 오버.**

무전기를 들고 대답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이혜안.

대답을 하지 않고 무전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녀는 팔짱을 끼면서 화장실 있는 방향을 쳐다본다.

**S #95. 길거리: 횟집 건너편 – 밤**

앉아서 담배를 피는 오현아.

그녀는 횟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오빠 오병식을 쳐다보고 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다시 얘기하기 시작한다.

 **현아 : 제일 슬픈 것이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못한다는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현아 : 병식이 오빠와 재환이를 마지막으로 봐야하는데.**

 **막상 저 세상으로 넘아가려고 하니까 섭섭하네.**

흐느낌을 겨우 참는 오현아.

 **현아 : 너와 나랑 너무 다르면서 비슷하거든. 둘 다 인생을**

 **관람객으로 살았잖아. 하나 너는 용기를 내서 성공했어.**

 **나는 허송 세월을 보냈지.**

코를 푸는 오현아.

 **현아 : 여기 시뮬레이션 인생은 거대한 시험이고, 악의 축은**

 **인간들이야. 인간들이 자기 숭배를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온갖 짓들을 해왔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더한 짓들을 할 것 같아. 대답도 없는데 너무 혼자**

 **지랄하고 있네. 덕후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도 나와**

 **같니? 기원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이 그것 밖에 없어.**

오현아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자리에 일어나서 천천히 방향없이 걸어간다.

**S #96. 패스트푸드 음식점 – 밤**

이헤안은 무전기를 들고 그것을 멍하니 쳐다본다.

그녀는 김도원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다.

재빨리 쟁반을 정리하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이혜안.

 **도원 : 연락 온 것 있어?**

 **혜안 : 없어.**

쟁반을 빼앗아서 들고 나가는 김도원.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뒤따라 나가는 이혜안.

**S #97. 번화가 보도 – 밤**

어느 아줌마가 상점의 문을 닫고 있다.

오현아는 땅바닥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들자마자 지나가는 의경과 눈이 마주친다.

의경을 향해서 대범하게 가는 오현아.

 **현아 : 라이터 있어요?**

의경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현아 : 안타깝네. 그럼 수고하세요.**

오현아는 천천히 편의점 앞으로 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의경의 뒷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S #98. 경찰서 진술실 – 밤**

김상현은 임규진 맞은편에 앉아 있다.

단둘이 있는 2명. 임규진의 얼굴은 멍들고 입가에 피가 묻혀 있다.

임규진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 손목 근처에 피가 흐르고 있다.

 **상현 : 아저씨가 저지른 범죄는 조사죄에 해당되거든.**

 **규진 : 증거 있어?**

곧바로 임규진의 싸대기를 때리는 김상현.

 **상현 : 공원의 CCTV가 있잖아, 저능아처럼 생겨가지고.**

그는 다시 임규진의 싸대기를 때린다. 의자에서 쓰러지는 임규진.

 **상현 : 어디 가는지 말해. 자수하면 형이 줄어든다는 것즘은**

 **알지. 찌찔아, 너한테 의리 따위도 없잖아.**

임규진은 꼼지락거리면서 의자에 앉는다.

그는 혼자서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상현 : 말해.**

 **규진 :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 만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임규진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김상현.

임규진은 맞기도 전에 엄청 크게 엄살을 부리기 시작한다.

 **상현 : 셋을 센다. 아무 얘기 없으면…**

 **규진 : (소리지르며) 다음 장소는 서울시립도봉도서관이야.**

 **됐냐?! 됐냐고?!**

 **상현 : 잘했어.**

진술실 밖을 나가는 김상현.

**S #98. 경찰서 진술실 안 쪽 – 밤**

최승진과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임규진을 관찰하고 있다.

임규진은 자책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다.

 **직원 : 변수가 없내요.**

 **승진 : 그러게. 가르쳐줬던 그대로야.**

안으로 들어오는 김상현.

 **상현 : 너무 쉬운데, (비웃으며) 저 새끼 불알이 없나봐요.**

 **5분을 넘겼습니까?**

 **승진 : 너는 고문을 얼마동안 버틸 수 있을까?**

 **상현 : 끝까지 버텨야죠.**

 **승진 : 말은 참 싸다. 당해봐야지 알지.**

김상현은 말대구를 하려다가 겨우 참는다.

그는 손으로 국정원 직원2의 어깨를 살짝 친다.

국정원 직원은 긴장하면서 겨우 입을 연다.

 **직원2 : 죄수는 어떻게 할까요?**

 **승진 :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고. 결과를 봐서 기억을 지우든지**

 **큰집으로 보내던지.**

최승진은 임규진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다.

울부짖기 시작하는 임규진.

**S #99.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앞 – 새벽**

오현아는 주차장 출인구 옆에서 쭈그려 앉아 있다.

인기척을 느끼자 재빨리 일어난다.

주차된 차의 뒤로 가서 몸을 숨긴다.

도서관으로 조심스럽게 낮은 주차장을 지키는 게이트를 넘는 2 사람.

 **혜안 : 언니?**

오현아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움직인다.

그녀는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숨는다.

주저하다가 경비실 뒤로 가서 몸을 숨긴다.

 **도원 : 갑의 인생을 포기하다니. 나였으면 중석이형처럼**

 **날라다니다가 가겠어.**

 **혜안 : 언니는 본능을 따라간 것 뿐이야. 중석씨도 결국 떠났잖아.**

 **도원 : 뜻을 펼치고 갔잖아.**

 **혜안 :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다친 투견을 구조해준 적이 있어.**

 **그 개는 얼마나 말을 잘들었는지…. 10살 때 호충을 데리고**

 **산책을 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 어려서 그런지**

 **호충이를 놓쳤어. 곧바로 고양이 목을 물어서 죽이더라.**

 **도원 : 개와 사람은 달라.**

 **혜안 : 막상 호충이는 고양이를 죽이고 나서 혼란에 빠져 있어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 본능대로 행동했는데**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도원 : 갑들은 목표를 잃지 않아.**

 **혜안 : 을과 병도 똑같아. 우리 모두 평등하니까 (김도원을 잡으며)**

**빨리 숨어.**

차 뒤로 숨는 이혜안과 김도원.

그들은 경비실 뒤에 있는 오현아를 발견한다.

오현아는 손가락을 입에 갔다대며 조용하라는 시늉을 보낸다.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서 나타나는 국정원 직원들.

최승진과 김상현, 국정원 직원은 총을 들고 나타난다.

 **승진 : 너는 여기를 지켜. 나머지는 각 층을 담당해.**

 **나는 도서관 앞을 막을게. 왠지 거기가 마지막**

 **통과 지점일 것 같아.**

 **상현 : 제가 여기서 막을게요, 차장님. 편히 쉬셔도 됩니다.**

최승진과 직원은 도서관 입구로 간다.

최승진은 기를 이용해서 잠긴 입구 문을 연다.

국정원 직원은 휴대폰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시킨다.

시간 경과.

혼자서 담배를 피면서 기다리는 김상현.

도서관의 모든 형광등은 커져 있다.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오현아, 김도원 및 이혜안.

 **현아 : 무기는 치우고 남자답게 대하시지.**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총을 겨냥하기 시작하는 김상현.

오현아는 주머니에서 S #52에서 받은 앏은 라이터를 꺼낸다.

 **상현 : 병닭아, 이점을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

 **그냥 자수하시지. 결과가 결정된 경기야.**

오현아는 라이터를 연다.

EMP가 터지면서 순간 주위 모든 건물들의 전기가 빠져나간다.

EMP 여파로 인해 주차된 차들은 감전된다.

전기가 오현아, 이혜안, 김도원을 감싸기 시작한다.

그들의 몸에 흐르는 전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오현아는 전기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현아 : 걱정마, 우리는 생물화확적으로 움직여. 전기는 통과된다고.**

오현아는 재빨리 김상현을 향해서 다가간다.

김상현의 몸은 전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다.

벌벌 떨면서 타는 김상현의 몸.

오현아는 바닥게 떨어진 권총을 집어든다.

 **현아 : 몸을 뒤져서 수갑을 채워라.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올라오지 마.**

오현아는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S #100.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1층 – 새벽**

오현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복도 건너편에 있는 국정원 직원은 조심스럽게 정찰을 하고 있다.

 EMP 여파 때문에 몸을 절뚝거리면서 한발한발 겨우 내민다.

그의 몸에서 전기 광선들이 흐르고 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자 눈살을 찌푸리며 총을 겨냥하고 있다.

약간 어두운지 휴대폰을 켜서 플래시라이트로 사용한다.

조금식 오현아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국정원 직원.

오현아의 시선.

기를 읽으며 국정원 직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녀는 적외선 파장들을 눈으로 보고 있다.

내부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기운으로 절뚝거리는 직원을 느끼는 오현아.

그녀는 김상현으로부터 뺏은 총을 바지 뒤에 숨긴다.

다시 눈을 감고 기운을 파악한다. 국정원 직원의 약한 기운을 파악한다.

오현아는 전력 질주를 해서 국정원 직원을 향해서 뛰어간다.

마주치는 국정원 직원과 오현아.

그녀는 좌우로 뛰면서 그를 향해서 다가간다.

뛰는 도중에 라이트를 날리는 척하면서 레프트 훅으로 그를 강타시킨다.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국정원 직원.

그의 총을 챙기고 수갑을 챙긴다. 수갑을 채우고 총을 발로 멀리 찬다.

**S #101.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앞 – 새벽**

전기 때문에 타는 김상현의 몸.

이혜안과 김도원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

김도원은 용기를 내서 김상현의 윗저고리를 만진다.

움직이는 김상현, 기겁을 하면서 넘어지는 김도원.

이혜안은 차분하게 수갑을 꺼내서 김상현의 손목에 그것을 채운다.

 **혜안 : 죽어가고 있어.**

 **도원 : 119를 부르자.**

 **혜안 : 무서워.**

 **도원 : 살려야지.**

일어나는 김도원. 그는 도서관의 형광등들이 커지는 것을 본다.

 **도원 : 119를 불러. 여기 있어라.**

김도원은 김상현의 총을 챙기고 재빨리 도서관을 향해서 뛰어간다.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누르기 시작하는 이혜안.

휴대폰을 김상현 입에 갔다대고 김도원을 뒤따라 가는 이혜안.

김상현의 인체는 자연발화되기 시작한다.

**S #102.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1층 – 새벽**

내부 계단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현아.

그녀는 여유있게 주머니 안에 손을 넣으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

뛰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그녀는 여자 화장실을 향해서 걸어간다.

**S #103.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2층 – 새벽**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국정원 직원.

그는 몸에 흐르는 전기에 풀어나가려고 애쓴다.

신음 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간다.

**S #104.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3층 – 새벽**

최승진은 가부좌 자세로 단전호흡을 하고 있다.

그는 전기를 흡수하면서 점점 더 평안을 찾는다.

기합을 크게 울부짖으며 일어선다.

총을 챙기고 여유있게 책 열람실 앞에 기다린다.

**S #105.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2층 – 새벽**

뛰는 김도원은 국정원 직원과 마주친다. 멈추는 김도원.

그는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김도원은 들고 있는 총을 떨어트린다.

통통거리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총.

국정원 직원은 슬로모션으로 손을 올리고 총을 겨냥한다.

뒤따라오는 이혜안은 재빨리 몸을 숨긴다.

**S #106.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여자 화장실 – 새벽**

여유있게 세수를 하는 오현아.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한다.

느닷없이 들리는 총소리. 3발 연속 시원하게 터진다.

소리를 듣자마자 2층을 향해 뛰어올라가는 오현아.

**S #107.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2층 – 새벽**

피를 흘리면서 숨진 김도원.

김도원의 팔, 어깨,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김도원의 목을 조르고 있다.

그는 총을 옆에 두고 광기어린 표정으로 김도원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는 김도원.

직원은 총을 들고 힘겹게 일어난다.

반대편에서 등장하는 오현아.

오현아는 김도원의 시체를 발견한다.

국정원 직원을 향해서 다가가는 오현아.

권총을 들고 차분하게 그를 겨냥한다.

당황한 직원은 총을 마구잡이로 쏜다.

오현아는 단 한방에 직원의 정수리를 관통시킨다.

뛰어나오는 이혜안은 절규를 하면서 김도원의 시체를 껴안는다.

이혜안은 그의 숨통을 확인하고 울부짖기 시작한다.

 **혜안 : (울부짖으며) 언니 때문이야!**

 **현아 : 너 때문이야. 왜 그들의 편에 섰는지 밝히시지.**

 **혜안 :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현아 : (가로채며) 충견은 너였고 고양이는 도원이였으니까.**

 **혜안 : 우리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김도원의 볼을**

 **어루만지며) 모험을 회피하려고.**

오현아는 총을 이혜안의 정수리에 갖다댄다.

이혜안은 광소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총을 미심륜으로 갖다댄다.

 **혜안 : 당겨. 잃을 것 없어.**

 **현아 : 나를 막아도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날 거야.**

 **혜안 : 언니가 넘어가던지 말던지, 왜 세상은 항상 언니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지밖에 모르니까 그래.**

총을 치우는 오현아. 그녀는 계단을 향해서 걸어간다..

 **현아 : (뒤돌아보며) 형제과 자매들의 모험을 복돋워줘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 아무리 무서워도. 응원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혜안은 김도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로 조심스럽게 올린다.

**S #108.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2층과 3층 계단 – 새벽**

계단 바로 앞에서 멈추는 오현아.

3층 계단에서 기다리는 최승진.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계단통에 기댄다.

 **승진 : 50프로 정도는 막았어.**

멈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오현아.

그녀는 5:27 A.M.이라는 것을 본다.

최승진은 고개를 뒤로 제끼고 난간통 넘어로 내민다.

 **승진 : 보이지, 올라오면서 쏴도 돼.**

 **나였으면 편하게 쉽게 지나갈 거야.**

 **현아 : 그럼. 딱 내 스타일이야, 쉽고 편하게.**

 **승진 : 올라와.**

그녀는 권총으로 최승진 뒤통수를 겨냥하며 천천히 걸어올라간다.

 **승진 : 도서관이 너의 장소라니, 의외야.**

 **현아 : 상상력의 원천이니까.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이네, 완전 데자뷰야.**

오현아는 3층에 올라온다. 총을 내려놓고 최승진과 대면을 한다.

최승진은 자세를 풀고 총을 꺼낸다.

 **승진 : 굳이 지금 꼭 뚫어야 되겠니?**

고개를 끄덕이는 오현아.

 **승진 : 각자 주어진 삶이 있잖아, 나는 꼭 너를 막아야 하거든.**

 **현아 : 그래라.**

 **승진 : 마지막 관문에 대화한 적이 처음이라서.**

 **현아 : (웃으며) 수다 떠는 것 좋아하는데.**

 **승진 : 33의 뜻을 좀 가르쳐줘라.**

 **현아 : 혁명이 원시점이야.**

휴대폰을 꺼내놓고 시간을 확인하는 최승진. 5:27 A.M.이다.

 **승진 : 왜 5:31분인지는 알겠니?**

 **현아 : 몰라. 왜 굳이 정오와 자정을 12시로 정했을까.**

 **승진 : 사람들이 태양을 관찰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겠지.**

 **현아 : 창조자들 마음이지, 뻔하잖아. 프로그램은 설정값에 돌아가잖아.**

**이빨 더 깔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춤을 같이 출까?**

 **승진 : 이빨 까는 것도 괜찮지. 시간 많아.**

 **현아 : 급한 일이 있어서, 미래를 확인하고 싶거든. 아저씨**

 **벌써 긴장을 하고 있잖아, (비웃으며) 땀 흘리는 것 좀 봐라.**

 **승진 : (웃으며) 춤을 출 수 밖에 없군.**

오현아는 서서히 코로스 스탭을 밟으면서 원으로 돌기 시작한다.

주문에 최승진은 오현아를 따라서 몸을 돌리기 시작한다.

원을 그리면서 서로 쳐다보는 두 사람.

각자의 총은 허벅지에 갖다 대면서 먼저 올리기를 기다리는 2사람.

땀방울이 최승진 이마에서 흐르기 시작한다

움찔하는 최승진,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도는 오현아.

 **승진 : 빨리 진행하자.**

멈추는 최승진. 같이 멈추는 오현아.

오현아의 입가에 앏은 미소가 번진다.

최승진은 땀을 흘리면서 눈을 부라리고 있다.

총을 동시에 겨냥하고 쏘기 시작하는 2 사람.

오현아는 간발의 차이로 먼저 최승진의 목을 관통시킨다.

최승진은 그 타격으로 인해 쓰러진다.

그는 쓰러지면서 총의 방아쇠를 당긴다.

오현아는 발로 최승진의 팔을 누른다.

계속 발사되는 최승진의 총. 그는 죽으면서 총의 방아쇠를 당긴다.

 **현아 : (흥분하면서) 그래봤자 종이잖아. 종은 주인의 뒷공무니나**

 **쫓아다녀야지, 날뛰면 죽는다고.**

그녀는 발로 그의 머리를 찬다.

 **현아 : (차분하게)** **여유가 넘치는 연기 멋있었어.**

 **연기일 뿐인게 안타깝울 뿐이야.**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오현아.

이혜안은 죽은 최승진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

3층 복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현아와 이혜안.

**S #109.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3층 복도 – 새벽**

5:31 A.M., 들리는 고음파 주파주 소리.

도서관을 향해서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오현아와 이혜안.

도서관의 입구에 생성이되는 플라즈마 문.

 **현아 : 언니로서 권유하는 거야. 벗어나는 재미를 느껴보자고.**

 **혜안 : 오빠를 놔두고 갈 수 없어.**

 **현아 : 도원이는 무릉도원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어.**

 **잡생각 집어치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고고싱하는 거야.**

오현아는 플라즈마 문 앞에서 멈춘다.

 **현아 : 언니는 모험을 떠난다. 같이 가자, 재미있을 거야.**

이혜안은 오현아의 시선을 외면한다.

 **현아 : 그래라. 너나 나나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오현아는플라즈마 문을 통과한다.

이혜안은 그녀가 문을 넘는 것을 지켜본다.

이혜안은 천천히 돌아서서 계단을 향해서 걸어간다.

**S#110. 유리벽 우주 통로 - 밤**

밖을 쳐다보면 천천히 걸어가는 오현아.

물로 가득찬 우주, 밝은 파란색 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그녀는 지구를 바라본다. 그녀는 경악을 한다.

오현아의 시선.

육각형 모양의 평평한 지구. 3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지구의 대기권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단단한 크리스탈 궁창.

별들은 궁창에 달라붙어 있으며, 천천히 돌고 있다.

달과 태양은 음양의 모양의 기운을 내뿜으면서 평평한 지구를 돌고 있다.

달과 태양 위에 있는 대기층은 전기로 가득차 있다.

지구 한가운데, 북극 자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

임규진은 가만히 서 있는 오현아를 향해 다가온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임규진 쪽으로 간다.

 **규진 : 부담스러울까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어.**

 **현아 :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규진 :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키며) 같이 넘어가면 보여줄게.**

 **현아 : 창조자님이신가요?**

 **규진 : 아니. 그들은 원천에 계셔.**

오현아와 임규진 홀로그램은 출구쪽으로 걸어간다.

출구 바로 앞에 놓여진 이상한 교탁 모양의 장치가 있다.

교탁 위에 손 모양이 홀로그램으로 비쳐진다.

 **규진 : 마지막 관문이이야.**

 **현아 : 손 잘릴 것 같은데. (웃으며) 그냥 넘어가죠.**

 **규진 : 손을 갖다대면 미래를 볼 수 있어. 느끼고 나서**

 **향후의 행동을 결정하면 돼.**

 **현아 : 부탁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규진 : 너희들한테 주어진 자유의지에 위배돼.**

이를 꽉 깨물고 손을 홀로그램에 맞추는 오현아.

그녀의 눈동자 색깔이 검게 변하면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오현아의 다운로드가 끝난다.

 **규진 : 10명 중 8명은 맺은 인연들 때문에 돌아가.**

 **현아 :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알고 있으면서요.**

 **규진 : 몰라.**

고민하는 오현아. 그녀는 지구의 크리스탈 창공을 쳐다본다.

 **현아 : 그냥 넘어갈래요.**

 **규진 : 의외다. 인간들은 회귀성이 강한 존재들인데.**

 **현아 : 그러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야죠. 33번째 리셋은**

 **새롭고 더 희망찬 세계로 업그레이드될거예요.**

현아는 거침없이 출구를 지나간다.

임규진의 홀로그램이 흔들기 시작한다.

사라지는 홀로그램 대신에 나타나는 인조인간.

**S #111.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2층 – 새벽**

이혜안은 김도원의 죽은 시체를 아직도 껴안고 있다.

복도 반대편에서 남자의 형체가 보인다.

이혜안은 그쪽을 쳐다보다가 죽은 김도원을 본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혜안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김도원을 쳐다보고 있다.

그녀 앞에서 멈추는 남자의 형체. 이혜안은 고개를 든다.

박중석은 그녀와 김도원을 번갈아보면서 쳐다보고 있다.

 **중석 : 정신 차려. 가서 구조를 요청하렴.**

이혜안은 조심스럽게 김도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녀는 민첩하게 일어서서 휴대폰을 찾으러 간다.

박중석은 양손을 비비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혜안이 안 보이자 박중석은 양손을 김도원의 가슴에 갖다 댄다.

양손이 가슴에 닿자 제세동 기계로 맞은 것처럼 펄떡거리는 김도원의 가슴.

김도원은 헉헉거리면서 다시 살아난다.

김도원은 양손으로 주먹을 어설프게 날리면서 괴성을 지른다.

 **중석 : 진정하라고.**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김도원.

 **도원 : 형은… 형은 죽었잖아!**

 **중석 : 니 앞에 서 있잖아.**

김도원은 자신의 볼을 잡아당긴다.

 **도원 : 누나와 형 같은 사람들만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

 **중석 :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너나 다 똑같아.**

 **도원 : 누나한테는 오류자들 빼고 다 NPC라고 했으면서.**

 **중석 : 너도 주인공이야. 너도 이제 자유인이야.**

 **도원 : 어떻게?**

 **중석 : 넘어가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스토리를 풀어나가야지.**

 **3층 도서관에 문이 있어. 빨리 넘어가.**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는 김도원. 5:34 A.M.이다.

시계를 박중석한테 보여주는 김도원.

 **도원 : 정해진 시간과 틀린데 어떻게 넘어가. 그럴 자격은**

 **있어? 자유인들만이…**

 **중석 : (가로채며) 눈을 5초 동안 감고 다시 떠봐.**

김도원은 눈을 감는다.

 **도원 : 1. 2, 3, 4, 5.**

눈을 뜨는 김도원. 세상을 기로 읽기 시작한다.

 **중석 : (창문을 손으로 지정하며) 봐봐.**

김도원은 창문을 통해 방영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는 자신의 이마에 빛나는 파란색 빈디를 본다.

 **중석 : 너도 이제 자유인이야. 빨리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지.**

 **징징이를 보러 가야지.**

김도원은 재빨리 3층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혼자 간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보면서 멈춘다.

 **도원 : 같이 가자.**

 **중석 : 천상천하유아독존. 혼자 뚫어야 돼.**

김도원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떡이며 계단을 향해 간다.

**S #112.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3층 복도 – 새벽**

도서관의 입구에 생성이되는 플라즈마 문.

단, 플르즈마 문의 색깔은 핏빛이다.

김도원은 문을 서슴없이 통과한다.

**S#113. 유리벽 우주 통로 - 밤**

밖을 쳐다보면 천천히 걸어가는 김도원.

그는 지구를 바라본다.

그는 지구의 광경 때문에 놀라서 멈춰선다

 **도원 : 3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네.**

오현아는 가만히 서 있는 김도원을 향해 다가온다.

김도원은 인기척을 느끼고 오현아 쪽으로 간다.

 **현아 : 한 번에 알아보네.**

 **도원 : 너도 시뮬레이션이잖아.**

 **현아 : 빙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도원 :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오현아.

김도원은 출구 바로 앞에 놓여진 이상한 교탁 모양의 장치를 발견한다.

 **도원 : 저것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현아 : 미래를 볼 수 있어.**

 **도원 : 손을 집어넣어도 돼?**

다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오현아.

 **도원 : 미래가 어떻게 풀릴지 알아.**

 **현아 : 그럼.**

 **도원 : 나를 놀리는구나. 항상 멍청하다고 놀리더니.**

 **현아 : 도원씨,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할게.**

 **도원 : 미안. 내가 아는 누나와 겉모습이 같아서**

**성격도 같을 줄 알았지.**

 **현아 : 혼란스러울 수 밖에. 한 번 맞춰봐.**

 **도원 : 예측해볼게.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어디서 사는지**

**깨닫게 되있어. 나는 항상 경제 대란이나 3차 세계 대전**

**때문에 세상이 리셋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았던 곳이**

**거짓이라니. 우주도 거짓말이라니. (허탈하게 웃으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정말 보고 싶다.**

 **현아 : 때가 되면 들고 일어날 거야.**

 **도원 : 이제 넘어가는 일만 남았구나.**

김도원은 출구를 지나간다.

오현아의 홀로그램이 흔들기 시작한다.

사라지는 홀로그램 대신에 나타나는 인조인간.

**epilogue**

**S#114. 국정원 지하 기계실 – 새벽**

최승진, 김상현 및 국정원 직원의 시체가 순간이동을 한다.

기계실의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는 세체들.

**씬 #26에 있었던 보라색 빛깔의 크리스탈 5개와 투명한 물통이**

**연결되어 있는 물체가 다시 나타나 있다.**

**물통의 물이 회오리 치면서 오렌지색으로 다시 변하는 크리스탈들.**

**크리스탈들이 작동되자 죽은 최승진, 김상현, 국정원 직원은 재생되기 시작한다.**

**먼저 살아나는 최승진과 국정원 직원.**

**그들은 옆에 누워 있는 김상현을 바라본다.**

**김상현의 불탄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한다.**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김상현.**

 **상현 : 죄송합니다.**

 **승진 : 다음을 막으면 돼지. 끝나지 않는 게임이잖아.**

 **상현 : 감사합니다.**

 **승진 : 미안하다.**

 **상현 : 제가 선택했어요. (웃으며) 대신 이력서가 화려해졌잖아요.**

일어나는 최승진.

그를 따라서 일어나는 김상현 및 국정원 직원들.

기계실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

 **승진 : 잘가라.**

 **상현 : 그럼요.**

김상현의 몸이 이상한 회색 액체로 변하기 시작한다.

액체가 번지는 곳마다 사라지는 김상현의 몸.

그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직원들.

**S #115. 서울시립도봉도서관 안: 2층 – 새벽**

불탄 휴대폰을 들고 나타나는 이혜안.

그녀는 김도원의 시체를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시체를 찾는다.

복도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검정색 고양이.

이혜안은 고양이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고양이.

이혜안은 고양이를 끝까지 쫓아간다.

**S #116. 긴 지하 터널 – 오후**

윤석현과 여러 다른 사람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앞서가는 트로이와 멜리사를 따라가고 있다.

터널 벽에 걸려 있는 야광 보석들 때문에 안이 훤하다.

일행 모두 터널 출구의 아름다운 광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S #117. 무릉도원 커피숍 – 오후**

오현아는 시골 한가운데에 있는 별장 커피숍 안으로 들어간다.

김도원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오현아는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그를 향해서 다가간다.

 **현아 : 덕후야~ 놀자~**

 **도원 : 누구세요?**

얼어붙는 오현아.

 **도원 : 저를 아세요? 누구세요?**

 **현아 : 혹시 김도원씨인가요?**

 **도원 :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현아 : 기억력을 지웠구나. 우리가 살았던 곳을 기억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김도원.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오현아.

 **현아 : 시뮬레이션에서의 삶을 기억하나요?**

 **도원 :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김도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오현아를 쳐다본다.

 **현아 : 죄송합니다. 제가 요즈음 계속 헛소리를 해서요.**

오현아는 어색해하면서 메뉴판을 본다.

 **도원 : 혹시 저를 만난 적이라도 있나요?**

 **현아 : 예전에요.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꼭 다시 만나게 될거에요.**

 **도원 : 글쎄요, 저는 조만간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아 : 다시 지옥으로 가려고?**

 **도원 : 여기는 너무 무료하잖아요.**

오현아는 메뉴판을 다시 쳐다본다.

그녀가 주문하기를 기다리는 김도원.

 **현아 : 카푸치노요. 가다니 아쉽내요. 어찌됐든지 간에**

 **행운을 빌어요.**

 **도원 : 감사합니다.**

오현아의 눈이 반짝거린다. 결제가 되었다는 표시가 홀로글램으로 뜬다.

김도원은 오현아가 주문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카운터를 떠난다.

오현아는 테이블을 향해서 걸어간다.

**끝.**